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3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8일(음력 2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총무원은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화재 복구공사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청사 복구 완료…"불교중흥 나아가자"

3월 31일 성료 기념행사
국제회의장 현판 제막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화재 발생 9개월 만에 복구공사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불교중흥을 향한 염원을 다졌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종회의원 스님, 총무원 부실장 및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지난해 6월 10일 종회가 열리던 중 연기가 솟아올랐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암담한 심정"이라며 "다행히 화재가 빠르게 발견됐고, 종회의원 스님들이 질서 있게 대피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복구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지만, 원장으로서 덕이 부족했던 탓은 아닌지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종정 예하를 비롯한 본사 주지 스님들과 사부대중,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이 시점에 완공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미처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살펴 총무원이 새롭게 태어났다"며 "앞으로 안전 점검에 더욱 유념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해 고운사 화재에 이어 6월 총무원 화재까지 이어지며 약 10개월간 종무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종무원들이 묵묵히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만한 기념관 입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08배를 했다. 김내영 기자

제주 4·3 불교 피해 규명 공식화 필요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폐지가 공식화되는 가운데 당시 제주도 종교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불교계에 대한 공식적인 피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9일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와 4·3 사건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 주도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 배상을 비롯한 피해 회복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건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불교계가 제주 4·3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당시 종교 피해 중 대부분이 불교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회장 김용범, 이하 사업회)가 발간한 피해자료집 〈4·3과 제주불교〉에 따르면 당시 제주에 있던 80개소 사찰 중 56개 사찰이 방화로 소실됐다.

특히 스님 17명이 희생된 점은 막 태동하고 있던 제주불교계로서는 뼈아픈 손실이었다. 당시 제주불교를 대표한 승려인 이일선은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정동원부에서 활동하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인 의장단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광사에서 예비검속돼 산지포구서 수장됐다.

李 "국가폭력 시효 폐지"
종교 피해 대부분이 불교
사찰 56곳 방화로 소실돼
스님 17명, 수장 및 총살
"공식적 진상 규명 있어야
피해 보상, 명예회복 가능"

표훈사 중향강원 강사로 활동했던 이세진 스님은 1948년부터 민중들과 함께 무장대로 활동했다. 무장대 지휘부였던 이덕구 등 15인과 관음사서 기거하며 활동했는데 군·경 토벌대에 잡혀 1949년 7월 산지 앞바다서 수장됐다. 화엄사 제주포교소 포교사로 제주 순회포교 활동을 전개했던 이성봉 스님은 1949년 10월 자신이 주석하던 금봉사로 피신 온 마을 주민들을 숨겨주다가 토벌대의 총에 희생됐다.

사업회는 "대규모 사찰 파괴와 주요 스님들의 희생으로 제주불교의 맥이 끊어졌고 한동안 제주도에서는 불교 활동이 불가능한 무불(無佛)시대가 이어졌다"면서 "불화, 불상 등도 소실돼 불교문화유산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불교계의 노력으로 제주 4·3 사건 당시 사찰 및 스님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이뤄지고 있고 자료집까지 발간됐지만, 공식화되지는 못했다.

김용범 사업회장은 "수년 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 보고서를 발간할 때 종교 피해 부분을 넣으려고 했으나 추가 조사 등을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공식적인 피해 조사와 진실 규명이 진행돼야지만 국가 차원의 사과를 비롯해 배·보상,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어 불교계 피해의 공식화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지난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주 4·3 과정에서 희생된 불교계 추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도 배·보상과 추념 사업 관련 방안이 이야기됐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비상사태와 종교의 보호' 발제에서 "제주 4·3 당시 사찰 파괴는 이념적 갈등 과정에서 중산간지대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군사적 필요에 입각해 발생한 파괴"라고 규정하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불법행위이며 보상과 복원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 행위"라고 봤다.

제주4·3특별법은 피해를 개인적 피해에 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이 교수는 "제주도 내의 부분적인 사회공동체인 불교계가 입은 피해도 독립적 항목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특별법 제22조 공동체 회복에 대한 조치에 포함하기 적절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제주시민사회와 제주불교계가 제주4·3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정부와 불교계 및 시민사회의 숙의를 거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 고

4월 1일부터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4월 1일부터 월 구독료를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구독료 인상은 2002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창간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기치로 불교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함께 신문 원자재 가격, 인쇄비, 우편발송료 등이 크게 올라 신문 제작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4년간 구독료 인상 없이 비용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문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현재의 구독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구독료 현실화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신문의 품격을 높이고 불교계 소식을 충실히 전하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언론 포교사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靈鷲叢林 通度寺
金剛戒壇
4. 21 (화) / 4. 23 (목)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께서
부처님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해 모신
금강계단을 수계 증명단으로 삼고 계율 전수를 통해
부처님 정법의 맥을 이어 온 계율근본도량입니다.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잇고자
병오년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수승한 인연공덕 지으소서.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 공동체를 이루는
菩薩戒山林
보살계산림

입재 2026년 4월 21일 (음. 3.5) 화요일
회향 2026년 4월 23일 (음. 3.7) 목요일



동참금 : 5만원
접수처 : 화엄전_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오전 8시 ~ 9시

불지종가 ·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제자리 찾은 종회…비구니 호계위원 또 부결

제23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종헌 개정안 두고 격론 끝 표결
종법 개정 '0'…원로의원 추천
결산 원안 승인, 4월 1일 폐회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237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31일 개회해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과 각종 인사안 등을 처리하고 4월 1일 폐회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이후 9개월 만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또다시 부결돼 아쉬움을 남겼다.

종헌·종법 개정안 줄줄이 이월·폐기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와 장로 대종사 신설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투표 끝에 부결됐다. 종무원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 8건도 모두 이월되거나 폐기됐다.

중앙종회는 의사일정 확정부터 격론을 벌였다. 종헌 개정안 2건은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지만, 의사일정 변경안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법제분과위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진각 스님은 "법제분과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들은 보류된 사안"이라며 "이를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심우 스님은 "종앙종회법 제41조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일 뿐"이라며 "분과위가 안건을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중앙종회는 거수 표결(찬성 41표, 반대 17표)을 통해 종헌 개정안 2건과 관련 종법 개정안 등 총 5개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했다.

곧이어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참여 종헌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75명 중 찬성 37표, 반대 38표로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을 심판하는 초심호계원에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발의자인 정운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요구가 지속돼 온 만큼 종단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은 이어졌다. 진화 스님은 "현재 종헌 73조 3항에는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는 명시가 이미 돼 있는데, 이를 손보지 않고 종헌 개정안이 성안된 것은 종회의원 81명과 종회사무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종헌 개정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원로회의에 추천된 취성 도법 대종사, 영담 덕운 대종사, 지봉 정완 대종사(왼쪽부터). 사진 제공=조계종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종헌 개정 등 17개 안건을 다룬 뒤 4월 1일 폐회했다.

장로 대종사 법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도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장로 대종사 법계를 새로 두고, 종헌 제28조 제6호에 규정된 원로회의의 자격을 '장로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논의 초기부터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

대표 발의자인 심우 스님은 "이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서 '대종사 자동 품수'를 인정한 법계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종단 어른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각림 스님은 "보다 폭넓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진 스님도 "승가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위상과 예우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시간 논의 끝에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해당 개정안은 재적의원 71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쇠락한 공찰을 중창 수준으로 발전시킨 주지를 '중창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찰법 개정안'과 승려법상 사정이 '병(丙)'과 '정(丁)'인 스님의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성, 차별 소지 등을 이유로 이월됐다.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과 호계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종립학교 보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발의자 철회 요청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호계원법 개정안 2건과 원로회의법·법계법 개정안은 종헌 부결로 일괄 폐기됐다.

원로의원 만장일치 추천

중앙종회는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취성 도법 대종사(금산사)와 영담 덕운 대종사(쌍계사), 지봉 정완 대종사(용주사)의 원로의원 추천을 만장일치 동의했다.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성공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공석이 된 재심호계위원에는 전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선출했다. 이어 성구·자성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소청심사위원으로는 각평·자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종봉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종봉 스님과 현무 스님이 추천됐으나, 현무 스님의 사퇴로 종봉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덕문 스님 사직에 따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복수 후보자로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과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추천됐다. 향림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로는 전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과 총무원 교육국장 지현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원경 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에는 대진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또 불기 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 대비 97.7%인 378억8159만3568원,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117.6%인 776억571만4038원이다.

중앙종회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4월 1일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6차 한중일불교대회 10월 20일 불국사

종단협, 3월 31일 예비회의서
본대회 일정 및 세부내용 합의
진우 스님 "한중일 힘 모으자"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0~22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는 3월 3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남산3룸에서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이번 대회는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열린다. 삼국별 축원을 올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과 국제학술강연회 및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세계평화 염원이 담긴 공동선언문은 논의를 거쳐 8월경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원장)은 "경주 불국사는 오랜 역사로 한국불교의 상징적 도량으로, 삼국 유대를 더욱 뜻깊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깊은 교류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만 합의를 마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각국 교류위원단은 4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고 뜻을 모았다.〈사진〉



진우 스님은 "올해 10월 한국대회를 잘 준비하겠다"면서 "동북아시아 대표국인 한중일의 불교계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상근부회장 종성 스님은 3월 31일 예비대회의에서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많은 스님들이 참여, 삼국 불교계의 우호교류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국제정세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일수록 한중일 유대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 카쿠쇼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불국사에서 대회를 하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시기, 삼국 불교계가 손을 맞잡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상진 스님 봉하마을 방문

3월 29일, 김경수 전 지사 등 동행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기원했다.

상진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지도자들은 3월 29일 봉하마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인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되새겼다.

방문에는 중앙원로수석부의장 지현 스님, 경남종무원장 황봉 스님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곽상언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이날 방문에서 상진 스님은 "모든 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종교와 이념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고종 역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실천에 더욱 힘쓰며, 국민 통합과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창종 제67주년을 축하합니다

경 대한불교총화종 창종 제67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 축

총화인권위원회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

붓다의 정법(正法) 당간지주를 세운 지 예순일곱 해. 과거의 지혜를 받들어
오늘의 아픔을 보듬고, 다가올 천년의 희망을 일구는 수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1. 성찰(省察):67년 전 창종한 초발심(初發心)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2. 상생(相生):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3. 미래(未來):시대를 선도하는 지혜로 온 생명의 평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종 제67주년 대한불교총화종 미래 비전 선언문

대한불교총화종의 지나온 67년은 밑 거름이요, 다가올 미래는 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그날까지 대한불교총화종은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고,자비로운 이는 온기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 듯" 행(行)으로 부처님의 전법을 펼치겠습니다.
하나. 정법(正法)이 일상이 되는 수행 종단
둘째.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 종단
셋째. 디지털 시대의 포교를 선도하는 혁신 종단

창종 제67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 일정
총화인권위원회 제1회 인권상 시상식

• 일 정 : 불기2570(2026)년 4월 15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실상사 설선당
• 주 소 :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 문 의 : 총무원(043)745-4508. 010-5436-2740

사단법인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 각 종도스님 및 포교사 사부대중 일동
종회의장 법 만 불교전통문화계승단 단장 본 원 총화인권위원회

전국 교구본사서 단기출가학교 잇달아

통도사·동화사 수행형 출가체험
행자 삶 체험…묵언·청규 엄격
청년층 참가비 지원 등 참여 확대
수덕사 보살행학교 수행 정진 돌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가 4월 1일 제2기 단기 선(禪)출가 프로그램인 '보살행학교'의 삭발식과 고불식을 봉행하고 9박 10일간의 수행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출가절벽' 대응책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단기출가학교가 잇달아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6월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간 경내 일원에서 단기출가 프로그램인 '보궁 출가학교'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주제로 한 이번 출가학교는 단순한 사찰 체험을 넘어,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본래의 나를 마주하는 수행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번 출가학교는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과정인 '행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새벽 예불과 공양, 사찰의 육체노동인 운력(運力)을 비롯해 염불과 독경 등 실제 스님들의 수행 일과를 체험한다.

통도사 연수국 관계자는 "단기출가는 누군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내려놓아 보는 시간"이라며 "조금 덜 말하고 조용히 머무르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다시 일어설 작은 힘을 얻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찰 내 규칙(청규)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전자기기 반납과 외부 연락 차단은 필수이며, 스님에게 질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묵언해야 한다. 도량 내 이동 시에는 두 손을 모으는 차수(叉手)가 의무화된다.

개인 간식, 흡연, 음주, 낮잠은 전면 금지되며 TV 시청과 외부 도서 반입도 제한된다. 세면과 세탁 등은 정해진 시간에 단체로 진행해야 하고, 의복은 무채색 계열만 허용된다. 단체생활 규칙을 위반해 대중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퇴방 조치된다.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라도 입방 당일 스님들과의 대면 면접인 '갈마'를 통과해야 최종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전염성 질환자는 입교가 불가하며, 입방 후 부상 및 질병으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퇴방 처리된다. 만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으로, 16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40만원이다. 만 25세 이하 지원자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사찰에서 지원한다.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 및 기숙사 건강진단서(결핵, 간염)를 첨부해 이메일(templestay@tongdosa.or.kr)로 5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는 5월 21일 개별 통보된다. 055-384-7085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광 스님)는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제1기 무문(無門) 단기출가학교'를 진행한다.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출가를 희망하거나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 공동체 생활과 수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7세부터 60세까지 남녀 각 10명을 선발한다. 참가자들은 수행 기간 동안 예불과 참선, 울력 등을 통해 수행자의 삶과 공동체 생활의 의미를 체득하게 된다.

동화사 관계자는 "무문 단기출가학교는 수행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출가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라며 "현대인들이 일상 속 번뇌를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화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donghwasa.templestay.com) 참조. 053-980-7979

앞서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4월 1일 제2기 단기 선(禪)출가 프로그램인 '보살행학교'의 삭발식과 고불식을 봉행하고 9박 10일간의 수행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보살행학교에는 남행자 3명, 여행자 7명 등 총 10명이 입교했다.

행자들은 부모님과 불전을 향해 삼배를 올리며 출가의 각오를 다진 가운데 "때가 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라는 구절을 낭독하며 무상의 이치를 되새기고 발원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애착을 끊고 불도를 이루겠다"는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잘라낸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이동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흙 속에 묻고 수행자의 삶을 서원했다.

조계종 제8기 종교평화위원회 출범

위원장 향문 스님 등 11명 2년간
홍주읍성 복원·사례집 발행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왼쪽)은 제8기 종평위원장 향문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갈 조계종 제8기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제7기 위원장을 역임한 향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미황사 주지)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위원장에는 7기에 이어 향문 스님이 연임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우곡사 주지 석산 스님, 수덕사 율학승가대학원 율감 현중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공동대표 정혜 스님이 새롭게 합류했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재가 전문가들이 대거 연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평화는 불교계의 목표이자 사명"이라며 "덕망과 명성을 갖춘 위원들이 규칙을 지키고 갈등을 평화롭게 조정하며 부처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 향문 스님은 "이제 종교는 사회 통합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 역할로 상생과 존존의 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촉식 후 종평위는 2026년 제1차 회의를 열고 활동 계획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종평위는 올해 △종교평화 문화정착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홍주읍성 불교문화 복원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 발행 △종교용어 연구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NGO 공모에 14개 단체 선정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에서
500~2000만원 지원 받아

조계종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지속가능! 공공가치! NGO사업 공모'에 로터스월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14개 단체가 선정됐다.

자비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공공가치!'를 기치로 진행된 이번 공모사업은 불교적 자비 정신을 현대적 공공가치로 승화시키고 종교적 경계를 초월해 일반 NGO들과 연대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미래세대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가재울청소년센터 '데이터 가든'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나나극단' △자비신행회 '나르샤 토요배움학교'가 선정됐다.

사회적 약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손으로 만드는 일상'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인.공' △안성시노인복지관 '마음채움학교' △영통장애인주간이용센터 '보이는 음악, 들리는 그림' △화성시아르딤복지관 'Safe Money 아르미'가 뽑혔다.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시민과학으로 야생조류와 공존하는 전남광주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 '환경보살 기후학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에코스테이션'이, 국제개발·인도적 지원 부문에서는 △더프라미스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지구 유치원 재건 및 교육정상화 사업' △로터스월드 '라오스 동자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 △사단법인 코인트리 '스라랑카 청각장애 아동 여학생 성장 자립을 위한 수어 직업교육 사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500~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임은호 기자**

비구니회원葬 본격 가동…상담 준비 완료

3월 26일, 20차 정기총회 개최
"비구니회 존재 피부로 와닿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3월 26일 서울 법륭사 만불전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국비구니회원장(葬)' 시행을 포함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노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봄부터 장례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평생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 온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공동체 안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발원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전국비구니회원장 가동을 물론 홀로 지내는 노스님 관리를 위한 전화방문상담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 회원 입회와 CM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원장 실행과 함께 의료비 지원자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와 장례봉행위원회, 전화방문상담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회원장 사업이 약화돼가고 있는 공동체 정신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며 비구니회의 존재가 스님들에게 피부로 와닿길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사업도 구상 중"이라며 5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3월 26일 서울 법륭사 만불전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를 올해도 지속할 계획이다. '내 삶과 마음공부, 선수행'을 주제로 한 상반기 수행결사는 4월 6일 입재를 시작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등 스님, 본각 스님, 정목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하반기 수행결사는 '간화선의 이론과 실참'을 주제로 9월 7일부터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초청법사로 수경 스님이 나선다.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설치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역사 바로 세우기 관련 사업도 진행된다. 4월 23일 주어사 법당터에서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임은호 기자

3월 임시종회 폐회에 즈음한 정법회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정법회는 3월 임시종회를 마무리하면서 제18대 중앙종회의 원활하지 못했던 운영에 대하여 모든 종도들에게 자성(自省)과 참회의 삼배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미래와 종단혁신을 위하여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이에 상응하는 종헌·종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밝힌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 혁신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오는 9월 예정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조계종단이 어떤 가치와 시스템 위에서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대다수 종도들은 현행 선거제도 운영 과정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승가공동체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 시기 여러 차례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종도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지만, 이를 종법으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종회의 대응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정법회는 우리 종단이 선거제도 개혁과 승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자 한다.

2. 종헌·종법의 전면 재·개정을 통한 종단운영체제의 혁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법회는 출범 초부터 1994년 개혁체제를 넘어서는 종단 시스템의 혁신을 위하여 종헌·종법 전면 개정을 위한 종단 차원의 공론화와 상설기구의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종헌·종법은 1994년 종단 개혁을 토대로 큰 틀이 성안된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이 반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적 정비 없이 주먹구구식 보완이 이어지며 법체계 간 짜임새가 무너지고, 규정 간 충돌과 해석의 혼선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종헌·종법은 종단 운영의 근간이자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시대변화와 종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누적된 개정으로 인해 구조적 모순과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조항 정비 수준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종단 운영 전반의 원리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면적 재·개정이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37대 종단집행부는 물론 중앙종회 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종책모임에서 이러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종헌·종법 개정을 통한 종단의 구조적 개선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종단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3.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개설할 것이다

정법회는 비록 우리의 종헌·종법 개정 제안이 현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정한 '종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넓은 종도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법회는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여 첫째, 승가 구성원 전체는 물론 재가불자, 청년불자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 교구별 순회 좌담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교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다. 셋째, 전문 연구자들의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종책자료들을 취합하여 종도들의 뜻을 왜곡 없이 수렴하고, 이를 종헌·종법 개정과 한국불교의 혁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다.

정법회는 이번 입장표명이 한국불교의 혁신과 종단 발전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주장이 종단 전체의 공론장으로 확장될 때까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종도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종단의 주인은 승가대중이며, 종단의 미래는 종도들의 지혜와 결집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정법회는 종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모든 종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불기 2570(2026)년 4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정법회 일동

한국불교 세계화 이끌 '국제포교불교大' 출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3월 28일
국제포교불교대학 첫 입학식
선명상과 템플스테이학과 등
심화과정 3개 · 기본과정 2개 개설
1기 88명 입학…1년 과정 실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3월 28일 '국제포교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1기에 88명은 1년간 불교영어통번역 등을 수학하게 된다.

조계종의 정식 인가를 받은 최초의 외국어 전문불교대학인 국제포교불교대학(학장 덕림 스님)이 첫 신입생을 받고 활동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3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UIDI 국제포교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 포교 인재 양성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국제포교사회 부설 교육기관으로 출범한 국제포교불교대학은 외국어 기반의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통해 'K-Dharma'를 세계에 전할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1년 과정으로 불교영어통번역학과(54강), 선명상과 템플스테이학과(54강), 불교문화와 행사학과(54강) 등 3개 심화과정과 함께 불교영어반(입문/기초/중급-30강), 불교일어반(기초-10강) 등 2개 기본과정이 개설됐다.

초대학장에는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장 덕림 스님이 추대됐다.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이 운영위원장을, 연등국제선원 주지 혜달 스님이 교수대표를 맡았다. 정형은 사카디타 코리아 공동 대표, 정목동 부경대 명예교수, 김연금 동양대 교수, 신대현 능인대학원대 교수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1기에는 88명이 등록했다. 국제포교불교대학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참여형 교육과 외국어·불교 교과의 균형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 포교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과 협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며 수업의 70%가 외국어로 진행된다.

입학식에서 국제포교불교대학장 덕림 스님은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원활한 국제포교를 위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세계 중생의 이익을 위해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 자리는 한 학교가 문을 여는 것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로 전하는 원대한 서원의 시작"이라고 감격을 전했다. 스님은 이어 "배움의 길 위에서 때로는 즐겁고 어려우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라며 "그 모든 가정은 참된 포교사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정진 또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 포교는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기도 한 정무 스님은 "앞으로 국제포교불교대학은 불교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이라면서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사명을 이어갈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조규태 국제포교불교대학 운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향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여러분은 종단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 외국어 전문 불교대학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주인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외국어 중심의 학습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용맹정진으로 수행과 배움을 이어간다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포교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같은 날 오후 제17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도 개최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총 20개 팀이 실력을 겨뤘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타카를 배우고 영어로 표현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 불교박람회 개막

"전통+현대로 불교 문화 새 장"

'힙불교' 열풍으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박람회)'가 4월 2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막을 올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장 원허 스님)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통문화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다움의 뿌리이자 지속 가능한 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라며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K-불교'와 'K-전통문화'가 세계인과 만나는 신한류 문화를 만드는 축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차주 상보〉

김내영 기자

진관사 주지에 법해 스님 재임

4월 1일, 진우 스님 임명장 전달



조계종 직할교구 진관사 주지에 법해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법해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진관사가 수행과 포교, 교육, 전통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불교 포교의 모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회주 계호 스님과 법해 스님 등 진관사 사부대중이 모범적으로 사찰 운영을 이어온 만큼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진관사는 사찰의 기능은 물론 국가적 영빈관 역할을 하고 있어 종단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사찰"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모범적인 면모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식 때 말씀하신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을 이끌겠다. 1700년 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을 이끌겠다'는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진관사가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봉녕사 하루 출가로 행복통장 채웠어요"

3월 28~29일, 제4회 팔관재계
18명 동참 · 계 지키며 수행 생활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의 팔관재계 수계식 모습.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4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했다. 팔관재계는 사찰에서 하루 동안 여덟 가지 출가계를 지키며 해탈 열반의 인연을 심는 수행법이다.

1박 2일간 열린 법회에는 재가불자 18명(우바새 3명·우바이 15명)이 참가해 출가자의 삶을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수행을 통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입을 모았다.

수행 일정 전반에 대한 만족감도 높았다. 참가자들은 "새벽 4시 기상과 예불, 108배 수행이 힘들면서도 뿌듯했다", "수계식의 장엄함과 관정 수계, 산화 의식이 큰 감동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불식이 걱정됐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연 속 바람과 새소리, 새벽 공기가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팔관재계 수행법회가 3개월마다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정진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이번 수행을 통해 마음의 행복통장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봉녕사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031-242-5412 김내영 기자



중신회 중국 순례 '선종 뿌리 찾아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3월 21~27일 진행한 '2026 중앙신도회 임원 중국 성지순례'를 원만히 회향했다. 순례에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제28대 선임직 부회장,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대표자 등 50여 명과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함께했다. 소림사를 시작으로 삼조사, 사조사, 오조사 등 선종의 법맥을 잇는 조사도량과 남악형산 일대 수행처를 거쳐 육조 혜능 대사의 남화선사와 광저우 지역 사찰에 이르기까지 중국 선종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김부겸에 '지도자 의지' 강조

4월 1일 대구시장 출마 포부 밝혀
진우 스님 "충분한 역할 할 것"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포부를 밝혔다. 진우 스님은 "지도자의 방향과 의지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4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대구에서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킨 바 있는 김 전 총리는 3월 30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구 재도약'을 외치고 있다.

진우 스님은 김 전 총리에게 "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국가 운영의 중심에 있었던 경험을 잘 살린다면 대구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구는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도시이자 불교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면서 "팔공산과 갓바위, 동화사, 은해사 등 불교문화로 시민들도 불교 DNA를 지니게 됐고, 자비심과 자리이타 정신이 자연스럽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마음을 이끌어내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적인 부분들을 살펴야 한다"면서 "지도자의 방향과 의지가 중요한 때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가 전통문화 역사가 깊은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불교계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중심 역할을 해 온 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다른 선택의 기회를 대구시민들에게 주겠다는 결심으로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면서 "지금껏 대구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제12기 대원청년 불자·동아리상 시상식

진흥원 112건 2억4200만원 지원
12기 기관 · 단체 지원 공모도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원청년 불자·동아리상 제12기 시상식이 개최됐다.

3월 27일 진흥원 대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수상자와 수상단체 회원 65명과 법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제12기 불자·동아리상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인원이 선발됐다. 불자상에는 대학생 17명·대학원 3명(총 20명)이, 동아리상에는 초등학교 2곳·중학교 12곳·고등학교 11곳·대학교 63곳·대학원 4곳(총 9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자상 수상자인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각 3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으며, 선정 초등학교 동아리에 50만원, 중·고등학교 불교 동아리에 각 150만원, 대학교·대학원 불교 동아리에 각 150만원이 전해졌다. 또한 선정된 모든 불교 동아리 지도 교수(교사)에게도 별도로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제12기 불자·동아리상에는 총 112건 2억4200만원 지원금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상진 이사장은 "청년 불자와 지도자 여러분의 정진이 곧 한국 불교의 희망찬 미래"라며 "청년불자 수상자들이 신행 생활에 새로운 용맹정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제12기 불교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월 31일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불교 신행실천 △불교 학술 세미나 및 학술지 발간 △불교문화행사 △불교복지 △불교 포교 △불교 미디어포교 분야 57개 단체가 선정돼 총 1억4900만원이 지원됐다. 신중일 기자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으로

3월 27일, 정기이사회서
정관 일부 개정 만장일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부재로 존폐 기로에 섰던 나눔의집이 향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추모 공간으로 기능을 이어간다.

나눔의집은 3월 27일 2026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향후 법인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에는 사회복지관, 노인의료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지원 및 운영 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눔의집은 지난해 9월, 거주 할머니가 병세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입소자 부재로 휴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 휴지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면 불가피하게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로부터 역사관과 추모공간 운영만으로도 사회복지법인 유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또 관련 시설 운영 적법성에 대한 해석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정관 일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신임이사로 덕림 스님을 선임했다. 임은호 기자

“법인 대종사여! 다시 돌아오소서”

각원사 조실 경해당 법인 대종사 영결·다비식

3월 27일 각원사서 엄수
사부대중 1500여 명 운집
통일 원력·포교 행장 기려

천안 각원사=유재상 충청지사장

남북통일의 염원을 청동대불 불사로 승화하고 인재 양성과 전법에 매진한 천안 각원사 조실 경해당 법인 대종사의 영결식이 3월 27일 각원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불자,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운집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대종사가 대독한 영결 법어를 통해 “경해당 법인 스님은 다겁생래의 원력으로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하시고, 이제 본래 생멸 없음을 보이셨다”며 “각령전에 향적세계의 향반을 올리오니 무생락을 누리시라”고 추도했다.

자광 스님은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데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면서 서로 화합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며 “다시 큰 광명으로 사바세계에 화현하시어 중생 제도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스님께서는 남북통일 염원을 청동대불 불사로 승화시키고 각원사 불교대학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며 현대 포교의 지평을 넓혔다”며 “태조산의 큰 별, 다시금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돌아오시라”고 추모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자비와 정직, 근면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수행자의 삶과 통일 서원은 사부대중의 가슴속에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경해당 법인 대종사의 영결·다비식이 3월 27일 각원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장의위원장 청우 스님은 “스승을 모신 인연을 되새기며 각원사 도량과 불교대학, 신도 조직을 통해 대종사의 원력을 확인했다”며 “스님의 통일 원력이 이어져 수행과 포교 도량으로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도대표 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사부대중에 감사를 표한 후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했지만 부족함이 많아 송구하다”며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수행과 포교 도량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천안 사암연합회, 제6교구 동림회 스님들과 태국·베트남 사찰 스님들이 운구에 참여한 가운데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연화대에 안치된 스님의 법구는 사부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염송 속에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졌다.

법인 스님의 49재는 3월 29일 초재부터 5월 10일 막재까지 천안 각원사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봉행된다.

주석 스님 詩, 프랑스서 예술로 꽃피다

3월 26일 파리 한국문화원서 프랑스어판 시집 출간 기념행사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불교의 수행 정신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다.

꼬레그라피협회(대표 남영호)는 3월 26일(현지 시각)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주석 스님(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의 시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Vous êtes le centre de ce jour)〉 프랑스어판 출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원과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행사는 명상으로 문을 열었다. 관객들은 주석 스님의 안내에 따라 명상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드로잉 퍼포먼스에서 스님은 일곱 가지 감정인 기쁨·분노·슬픔·즐거움·사랑·미움·욕망을 색채로 풀어내며, 모든 감정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드로잉은 ‘마음[心]’에서 출발해 ‘문(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감정이 마음의 문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형상화했다. 주석 스님은 “모든 감정은 마음에서 시작해 다시 마음으로 돌아간다”며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영호 총감독과 프랑스 무용수들이 함께한 무용 퍼포먼스에서는 주석 스님의 시 세계가 몸의 언어로 확장됐다. 시의 메시지를 움직임으로 재해석해 동서양 예술이 교차하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시집 번역을 맡은 문영훈 시인과 프랑스 라신느(Racine) 출판사 알랑 브르통 대표가 참여한 시 낭송과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됐다. 파리 7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은 “영성과 예술을 결합한 점이 인상 깊었고, 바쁜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불사 ‘첫 삽’

3월 29일 송천동 현장서 기공식
11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경우 스님 “전북 포교 거점될 것”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3월 29일 전주 에코시티 내 종교용지 현장에서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봉행했다.

전주에 전북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일굴 장엄한 불사의 서원이 울려 퍼졌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3월 29일 전주 에코시티 내 종교용지 현장에서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봉행했다.

기공식에 앞서 사부대중은 공사의 원만한 진행과 현장의 안전을 발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법진 스님, 법정 스님, 지헌 스님 등이 집전한 안전기원제는 전통 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돼 대작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는 전액 선운사 자체 부담으로 건립된다. 부지 매입비 25억원, 설계비 4억6000만원, 건축 공사비 87억원 등 총 1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작불사다.

법계사는 대지면적 1698.90㎡(약 514평)에 연면적 3671.83㎡(약 1111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힐링 공간’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공간 배치는 불교 교리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1층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카페와 키즈존 등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꾸려진다. 2층은 불교문화 체험 및 교육 공간, 3층은 대웅전과 명상실 등 수행 공간, 4층은 스님들의 주거 및 사무 공간으로 조성된다.

외관은 도심 속에서도 산사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선운사 만세루와 극락교, 6층 석탑의 디자인 요소를 차용했으며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공식은 단순한 건축의 시작을 넘어 수행과 전법의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 이라며 “더 이상 산중에만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은 지역 주민 누구나 마음을 쉬고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의 장이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하게 회향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장은 고불문을 통해 사부대중의 간절한 서원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정 회장은 “이 도량이 정법이 살아 숨 쉬는 수행과 포교의 전당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행사의 열기를 더하는 문화 공연과 보시 행화도 이어졌다. 특히 임종혁 전 선운사신도회장은 전주포교당 법계사 건립 기금으로 1300만원을 전달해 불사의 원만 추진을 바라는 신도들의 정성을 대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뇨엔, 개조 탄신 120주년 대재 봉행

3월 29일 서울정사에서
이토 원주 “자비행 실천”



재가불교 교단 신뇨엔(眞如苑)이 이토 신죠(伊藤真乘) 개조(開祖) 탄신 120주년을 맞아 3월 28일 서울 신뇨엔 서울정사에서 기념대재를 봉행했다. 대재는 일본 현지의 1만여 대중이 모인 총본부 등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서울정사에는 3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이날 대재는 불교의식과 함께 생전 개조의 가르침 영상 상영과 헌화와 헌공, 이토 신소 원주의 인사말, 기념비 제막 등으로 진행됐다.

이토 신소 원주는 인사말을 통해 개조 탄신 120주년이 갖는 종교적 의미와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실천행을 강조했다. 이토 신소 원주는 “2026년은 만물을 빚어내는 에너지와 활기찬 번영을 상징하는 동아시아 십이지신의 ‘불의 말띠(병오년)’ 해로, 개조이신 신죠 스승님께서 바로 불의 말띠 해에 태어나셨기에 올해 탄신 120주년이 더욱 뜻깊다”며 “올해 개조의 삶을 기리며 △사랑과 보살핌으로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것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안식처에 굳건히 세울 것 등 두 가지 정진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불자들이 지녀야 할 대승불교의 보살도에 대한 법문도 이어졌다. 공동 개조인 이토 토모지(伊藤友司) 스승이 십일면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감득한 일화가 소개됐다.

행사 후 서울정사에서는 이토 신죠 개조의 가르침을 담은 〈마음에 부처를 새기다, 신죠〉 한국어판 출간 안내도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남북보궁’ 금강경으로 하나 되다

3월 29일 통도사 설법전 등서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 3주년
3700여 명 동참·1보 1배 정진
한암 스님 결사 정신 현대적 계승
성파 대종사 “내 안의 부처 찾아야”


3월 29일 통도사에서 열린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 3주년 대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보궁 일원에서 1보 1배 정진을 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수천 명의 ‘금강 행자’들이 영축산 적멸보궁 통도사를 장엄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적멸보궁인 영축산 통도사와 오대산 월정사의 ‘남북보궁(南北寶宮)’이 거대한 신행의 물결로 이어졌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3월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과 금강계단 일원에서 ‘금강경 봉찬기도’ 3주년을 기념하는 정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서울, 강릉,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모인 37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주요 내빈의 인사말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문, 금강경 독송 정진의 순으로 진행됐다. 금강경 독송 정진은 목탁과 북을 함께 사용해 힘을 북돋는 월정사 특유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참석 대중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향해 1보 1배 정진을 했다.

도량을 가득 채운 대중 정진의 환희로움은 참가자 개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신행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안현정(54·서울) 불자는 “평소 금강경을 꾸준히 독송하면서 살아가며 겪는 희로애락 앞에서도 감정의 고저 없이 마음이 참 담담해졌다”며 “수행을 통해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에, 이번 통도사 법회에서 얻은 환희심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정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진미경(56·강릉) 불자 역시 “스님들과 한목소리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시간이 삶의 큰 복덕이 되고 소망을 성취하는 든든한 힘이 됨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파 스님은 “온종일 밖에서 봄을 찾아 헤매어도 찾지 못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매화 가지에 이미 봄이 와 있더라”는 옛 게송을 인용하며 “부처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수행의 본질을 설했다.

이어 스님은 “한암 스님이 금강경 봉찬기도를 시작한 근본 취지는 중생의 범부 마음을 바꾸어 성인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혁범성성(革凡成聖)’에 있다”며 “금강경 독송을 통해 자성을 깨쳐 모두가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통도사에서 수학하고 내원사 조실을 지냈던 한암 스님의 인연을 되짚으며 “오늘 수천 명 대중의 방문은 한암 노스님이 수십 년 만에 여러분을 이끌고 통도사로 다시 오신 것과 같다. 통도사에 살면서 오늘처럼 감개무량한 날은 처음”이라고 각별한 소회를 전했다. 또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극한 신심을 오늘 이곳에서 가득 채우고 돌아가 일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격려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에서 “수천 명의 대중이 모였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정숙함과 질서 정연함을 보여줬다”며 “이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정진한 결과로, 그 수행 품격에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월정사 수행원장 자현 스님은 “월정사와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도량으로, 각각 고산제일(高山第一)과 야산제일(野山第一)로 불린 ‘남북보궁’”이라며 “어른 스님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앞으로도 정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는 1930년 한암 스님이 주도한 ‘오대산석존정골탑묘찬앙회(五臺山釋尊頂骨塔廟贊仰會)’를 모태로 한다. 일제강점기 사찰의 위기를 극복하고 호국 신앙을 결집하기 위해 시작된 이 결사는, 3년 전 월정사 본사 차원의 신행 모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범어사, 가족 명상 나들이 개최

4월부터 7월까지 ‘영웅을 찾아서’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일환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4월부터 7월까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대웅(大雄),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범어사 히어로즈’는 스스로 마음을 올곧게 세우고 번뇌를 이겨내는 존재인 ‘대웅(大雄)’의 참뜻을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교육 체험이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경내를 거닐며 범어사에 깃든 호국 불교의 역사를 배우고, 나무로 된 ‘우드 씨어터’를 이용해 범어사 전각을 직접 조립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는 ‘무시로 명상’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어른들을 위한 ‘집중 선명상’에서는 부관장 도명 스님의 안내에 따라 호흡을 다스리며 수행이 주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아이와 부모가 다 함께 참여하는 ‘가족 요가 명상’은 박물관 주변의 맑은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몸과 마음의 건강한 조화를 배우는 시간이다. 여기에 나를 온전히 비추어보는 ‘업경대 거울 만들기’ 체험이 더해져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되돌아보는 기회를 선사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발족

부산불교聯, 3월 29일 범어사서
어린이 포교·전통문화 계승 앞장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3월 29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제5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발대식’을 봉행하며 ‘2570부산연등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지도법사 법진 스님과 김진희 운영회장을 비롯해 지도교사, 학부모와 어린이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승단은 1년 동안 부산연등회와 팔관회에 직접 참여해 불교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예정이다.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재동자는 집안의 보물이자 앞으로 훌륭한 불자로 성장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큰 인물이 될 동량(棟梁)”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청년 전법’ 삼보일배

3월 28일 범어사 경내서
캠퍼스 포교 활성화 발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3월 28일 범어사에서 ‘청춘 전법 서원 삼보일배’를 봉행했다.

부산지역 대학생 불자들이 캠퍼스 포교와 청년 전법의 원력을 다지며 범어사에서 삼보일배 대장정을 펼쳤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는 3월 28일 범어사에서 ‘청춘 전법 서원 삼보일배’를 봉행했다.

‘절로 다지고, 캠퍼스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학생 불자들이 자신의 신행을 점검하고 침체된 캠퍼스 포교와 청년 전법 활성화를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진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포교국장 해공 스님, 사회국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대불련 부산지부 대학생들, 범어사 청년회 ‘금어’와 ‘금샘자원봉사단’도 동참해 세 걸음마다 절을 올리며 하심과 상생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청년 전법의 의지를 담은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가파른 오르막길을 고단함 속에서도 도반들과 격려를 나누며 묵묵히 정진을 이어가 삼보일배를 완주해 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대불련 대학생들과 청년회 금어, 금샘자원봉사단이 한데 모여 땀 흘리는 정진의 자리가, 마침내 이루어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는 뜻깊은 법석이 됐다”고 환희심을 전했다.

스님은 이날 대불련 부산지부와 범어사 청년회 ‘금어’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혼자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험난한 길도 대중이 함께 발을 맞추면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삼보일배의 가르침”이라며 “오늘 대견한 원력을 성취한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땀방울마다 깊은 불심이 차오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범어사 정기 법회와 연등회 등에 참가하며 청년 신행 공동체를 다져갈 예정이다. 특히 교내 동아리 결성이 어려운 학생들을 아우르는 ‘연합불교동아리’를 조직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침체한 대학가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린이 15명 ‘유발상좌’ 인연 맺다

혜원정사 3월 26일 수계 법회
‘우리 아이 스님과 인연 맺기’



부산 혜원정사(주지 인호 스님)가 부처님 출가재일을 맞아 사찰의 미래 세대를 위한 수계 법석을 마련했다.

혜원정사는 3월 26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영유아 및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스님과 인연 맺기 – 유발상좌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수계식에는 혜원소년소녀합창단원 등을 비롯한 어린 불자들이 참여해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주지 인호 스님은 어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눈높이에 맞춰 불교의 기본 윤리인 오계를 설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마정수기 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수계첩을 수여하며 각자의 불명에 담긴 깊은 뜻을 설명했다.

스님은 “오늘 인연을 맺은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불자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산당 혜원 대종사 5주기 다례재

3월 29일 쌍계사 일원서
영모전·부도전 참배도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3월 29일 경내 일원에서 고산당 혜원 대종사 열반 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고산문도회 문장이자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스님,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 주지 지현 스님, 건당제자 보리암 성조 스님, 전계제자 덕민 스님,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망운사 성각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보문사 진현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큰스님의 법향을 기렸다.

다례재는 영모전, 부도전 참배와 헌향을 시작으로 팔영루에서 본격적인 의식이 진행됐다. 의식은 분향, 헌다, 삼배, 반야심경 봉독, 청법게, 영상 법어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고산 스님은 생전 영상 법문에서 “부처님과 조사들이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육신이 아닌 마음의 깨달음을 뜻한다”며 “중생은 스스로 마음의 장애를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쌍계사합창단이 추모곡 ‘열반의 노래’와 ‘무소유의 노래’를 음성공양했다. 주지 지현 스님의 전별헌다공양 후 대중이 삼배를 올리며 다례의식을 회향했다.

영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고산 대선사의 가르침을 기리고자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라오스 자비나눔

3월 23~24일 비엔티엔 등서
학교 화장실 신축·물품 전달



김해시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회장 명우 스님·성조암 주지, 이하 모임)이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자비나눔을 펼쳤다.

모임은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과 방비엥에서 후아이남옌초등학교와 폰팽초등학교를 방문해 화장실 신축 공사를 지원하고 학용품 및 각종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모임 회원들과 조계종 스님 및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1500만원을 모연해 진행됐다.

3월 23일에는 비엔티엔 후아이남옌초등학교를 방문해 화장실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이곳에는 학생 158명과 교사 5명이 재학 중이다. 모임은 이날 공책과 연필, 볼펜 등 학용품과 초코파이·초콜릿·사탕 등 간식류, 공과 머리핀 등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3월 24일에는 방비엥 폰팽초등학교를 찾아 학생 102명과 교사 8명에게 공책과 필기구 등 학용품과 젤리 등 간식류를 전달했다.

회장 명우 스님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 혜진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봉선사, 주민들과 “대한독립만세”

3월 28일 봉선사 일주문 앞서
제107주년 3·1 만세운동 기념식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3월 28일, 3·1운동 만세 시위지인 일주문 앞에서 ‘제107주년 봉선사·부평리 3·1 만세운동 기념공연’을 개최했다. 진접 3·1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광동학원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학생,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진 역사의 장이었다.

진접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향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날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중단됐던 기념식을 3년 전부터 다시 시작했다”며 “예산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소중한 역사가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기념사에서 “107년 전 젊은 나이에 용기를 냈던 태허, 완수, 지월 스님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상수 남양주 부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시 차원에서 예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순서였다. 광동고 파라미타 동아리 학생들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선열들의 자주독립 의지를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기념 공연에서는 뮤지컬 ‘그날’ 팀의 갈라 콘서트가 펼쳐졌다.

남양주 봉선사=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동백꽃 핀 선운사서 청춘 남녀 6쌍 피어나다

‘나는 절로’ 선운사 편 성료
3월 28~29일 선운사 일원서
경우 스님 ‘성사 후원금’ 격려

고창 선운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고창 선운사에서 ‘나는 절로’를 진행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의 단체 기념촬영.

천연기념물 동백꽃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고창 선운사에서 6쌍의 커플이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선운사에서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선운사 편은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해 호남권 거주자를 우선 선발했다. 남녀 각 10명 모집에 총 644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이동하는 대신 현장에 개별 집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동 과정에서의 교류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두근두근 랜덤 데이트’는 참가자들이 초반부터 다양한 이성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참 좋은 시절에 선운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도량 곳곳에 동백꽃과 매화가 활짝 피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다. 청정한 도량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은 참가자들의 소중한 인연과 커플 성사를 기원하며 기념품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올해부터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 첫 번째가 선운사”라며 “수많은 신청자 중 선정된 특별한 인연인 만큼 진심과 따뜻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륜 스님은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만남을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인연 맺기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불교에서 중시하는 인연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사찰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이미 여러 커플이 결혼을 확정 지은 성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영남권, 강원권 등 지역별로 찾아가 더 많은 청년에게 희망과 인연의 기회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여성 참가자는 “아침에 처음 왔을 때는 정신이 없어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며 “함께 공양하고 산속 도량을 산책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소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된 뜻깊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선운사 편은 최종 6쌍의 커플이 탄생하며 명불허전 인연 맛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나는 절로’는 고즈넉한 사찰 환경과 현대적 만남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로 건강한 만남 문화 조성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5월 9~10일에는 영남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나는 절로, 동화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월 중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재단 인스타그램 또는 홈페이지 구글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은해사, 성로 스님 체제 출범 “화합으로 발전”

3월 30일, 종무원 상견례서
“화합 · 재정 자립 도약” 약속


은해사는 3월 30일 신임 주지 성로 스님의 취임 인사 및 신임 국장 임명장 수여식, 종무원 상견례를 개최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가 신임 주지 성로 스님 체제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은해사는 3월 30일 주지 성로 스님의 취임 인사 및 국장 임명장 수여, 종무원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성로 스님은 총무국장 선웅 스님을 비롯한 신임 국장단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성로 스님은 취임 소회를 통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듯 가장 좋은 정치는 구성원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은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은해사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자랑스러운 도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지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에 대해 성찰의 뜻을 밝히며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스님은 “선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화합”이라며 “불필요한 우려를 끼친 점을 성찰하고, 교구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재정 자립’과 ‘복지 향상’을 꼽았다. 성로 스님은 은해사 수림장에 모신 영가들을 위해 매달 1회 합동천도재를 봉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은해사 후원회’를 구성해 CMS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종무원과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포교 활성화를 위해 관봉 갓바위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약사불회(가칭)’ 창립 계획도 발표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산행하는 정근 기도회를 통해 불법 홍포와 교구 발전 재원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성로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은해사의 발전과 포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은해사를 만들기 위해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을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해사 사부대중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신임 주지 스님과 함께 불법 홍포와 교구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송광사서 ‘사찰음식+국악’ 한마당

3월 29일 경내서 문화행사
1000명에 사찰음식 공양해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29일 경내에서 ‘2026 송광사 사찰음식 문화한마당’을 개최하고 지역민과 사찰음식과 문화예술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연을 담은 밥상, 소리를 빚는 도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송광사가 보유한 사찰음식 문화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송광면·주암면·외서면 등 인근 지역 주민과 내방객 1000여 명이 참여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핵심인 사찰음식 공양은 사찰음식 전문가 능가 스님이 준비한 건강한 메뉴로 마련됐다. 능가 스님은 송광사 후원에서 지역민들에게 사찰음식을 공양했으며,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직접 배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문화행사에는 승남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전남도립국악단의 전통 국악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승남중학교 전교생이 현악기를 배우며 구성한 앙상블은 지역 문화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떡메치기 체험과 감로다례 전통차 시음, 한과 시식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무자 스님은 환영사에서 “소박한 음식이지만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좋은 기억을 담아가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대학에 신입생 1500명 입학

3월 26일 전국 9개 도량서
회주 우학 스님, ‘끈기’ 강조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대륜 스님)가 3월 26일 옥불보전에서 2026년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회주 우학 스님과 주지 대륜 스님, 이영애 총동문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 9개 도량에서 1500여 명의 신입생이 동시 입학해 눈길을 끌었다.

우학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삶이 수월해지고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 교리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 큰 이득이 생기게 된다”며 “꾸준히 또 끈기 있게 공부해서 큰 성취가 있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주지 대륜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가 없도록 늘 살피겠다”며 “대관음사라는 좋은 인연 만났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공간을 잘 가꿔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애 총동문신도회장은 축사에서 신입생들을 ‘복 받은 인연’이라 칭하고 “스님의 쉽고 자세한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정진해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해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2년간 전법사 과정을 통해 불교 기본 교리와 사찰 예절, 명상 등을 배우게 된다. 이후 교법사·삼장법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행과 포교 역량을 갖춘 불자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강진 백련사 사찰음식 경연대회 성료

3월 27일 발효음식 주제
대학생 8팀 라이브 경연



한식의 본고장 남도에서 사찰음식의 깊은 맛과 가치를 조명하는 경연대회가 열렸다.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3월 28일 경내에서 ‘제6회 백련사 차(茶)와 사찰음식 전시·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제3회 동백꽃 축제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는 ‘비움의 수행, 채움의 정성, 자비 나눔의 꽃’을 주제로, 동백과 사찰음식을 결합한 남도형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동백꽃이 절정을 이룬 시기에 맞춰 차 문화와 사찰음식 경연, 발효음식 특별전시, 동백꽃 체험부스가 함께 진행되며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했다. 발효음식 전시에서는 김치와 장, 식초 등 우리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이 소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지 설도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지혜와 의미가 하나의 선(善)이 되어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서로 나누는 인연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수행과 나눔이 함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대학생들이 참여한 라이브 사찰음식 경연이었다. 요리를 전공하는 대학생 8개 팀이 참가해 현장에서 직접 조리를 진행하며 사찰음식의 창의적 해석과 현대적 가능성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절제와 수행의 의미를 담은 사찰음식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현장에 활력을 더했다.

이날 경연에서는 대학생 8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상(국가유산청장상)은 ‘걸리버 사찰기’ 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채식주의보’, 우수상은 ‘금강’, ‘저는 봄이 쪼아요’, ‘연화’ 팀이 각각 차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담당 진성 대종사 18주기 다례재

수덕사, 3월 29일 봉행



조계종 제7교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3월 29일 원담당 진성 대종사의 열반 18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덕숭산의 가풍을 ‘문 없는 가풍’이라 하셨다. 들어갈 틈도 나올 틈도 없지만 항상 열려 있어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문이라는 뜻”이라며 “그 문은 업장이 없어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또한 들어갈 틈 없는 그 문, 나올 틈 없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덕사는 〈수덕유사〉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수덕유사〉는 설정 스님의 회고와 구술을 바탕으로 경허·만공 선사를 비롯한 선지식들의 행적과 덕숭산과 인연을 맺은 스님들, 수덕사의 현대사, 만공 스님의 항일 정신 자료 등을 담은 책이다.

원담당 진성 대선사는 경허·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은 선지식으로 1933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이후 수덕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원로회의 부의장, 덕숭총림 제3대 방장을 역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관응당 지안 대종사 22주기 다례재

3월 27일 직지사 중암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강백이자 유식학의 대가로 추앙받는 관응당 지안 대종사의 원적 22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재가 3월 27일 김천 직지사 산내 암자인 중암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는 지안 스님이 생전 주석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중암 영산보전에서 관응문도회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향, 헌다, 헌화의 예를 올리며 스님의 엄격한 학풍과 수행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불교 교학 전통 확립에 기여한 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문도 대표 도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스님들이 노스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선배 스님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향이 끊이지 않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양주 대승종 원각사 개원 법회

3월 29일 부처님 점안도



대한불교대승종 원각사(주지 보성 스님)는 3월 29일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대승종 종정 법경 스님과 총무원장 일봉 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를 비롯해 안학기 신도대표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원각사의 앞날을 축원했다.

주지 보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봄 내음 가득한 감악산 자락에 원각사 터전을 잡고 부처님을 모시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부처님 말씀을 전법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누는 도량, 신도들의 편안한 안식처와 기도 도량이 되도록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근대 제주불교 김석윤, 승적·이력 전부 허위”

혜달 스님, 대행선硏 ‘한마음연구’ 제16집서 주장

승적부, 복수 필체 확인되고
가필 뚜렷해…기입도 불완전
결혼 후 1894년 출가 ‘불가능’
“부인 4명에 아들 · 딸 8명 둔
보천교 및 강증산계 미륵교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 제주불교사와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김석윤’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김석윤을 ‘승려’이자 1909년 제주의병 운동의 ‘의병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김석윤의 승적부는 허위여서 승려가 아니며 의병장이 아닌 참여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사진〉은 대행선연구원 발간 학술지 〈한마음연구〉제16집에 발표한 ‘김석윤의 승적 진위와 종교적 정체성 고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혜달 스님은 김석윤의 승적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승적부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록, 일제 사법기관 문서, 일제 공기관 문서 등 7건의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김석윤의 승적부(대흥사본)는 총 2면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1면과 2면의 필체가 다르고 가필(加筆)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인증 연월일이 없는 등 기입이 불완전한 미인증 문서라는 게 스님의 분석이다.

김석윤이 1894년 7월 15일 득도 및 사미계를 수지하고 1938년 3월 25일 도첩을 받았다는 이력에 대해서도 혜달 스님은 허위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1894년 출가’가 불문(佛門)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면 하루 동안 득도와 삭발, 사미계 수지가 이뤄졌고 도첩은 44년이나 지나 수령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김석윤을 출가한 스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혜달 스님은 당시 제주도의 성혼기를 분석하고 김석윤이 17세였던 1893년을 전후로 첫째 부인과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의 출가를 부정했다. 실제 김석윤은 네 명의 부인에게서 아들 4명, 딸 4명을 뒀다.

스님은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1910년 이전 한국불교계에서 대처식육은 용인할 수 없는 파계였고 1920년대 후반 들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김석윤은 1890년대부터 부인이 있었고 1907년에는 장남도 태어난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선불교 제도권의 수계제도를 준용하면 김석윤의 ‘1894년 출가’, ‘관음사 창건과 함께 관음사를 근거로 한 승려활동’은 억설이자 사실 왜곡이며, 승적부의 출가는 허위”라면서 “김석윤이 1949년 사망하기까지 승려 신분이 지속됐다는 주장은 승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혜달 스님은 김석윤의 종교 정체성 역시 불교가 아닌 ‘보천교 및 강증산계 미륵교’임을 주장했다. 보천교가 발행한 〈보광〉 창간호에는 1923년 4월 23일 보천교 제주 진정원(일종의 교당) 개원식이 열렸고 이곳의 전 의사장이 ‘김종화’임을 기록하고 있다. ‘김종화’는 김석윤의 이명으로 그는 보천교 제주 진정원의 관리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석윤의 동생이 지은 ‘망형석성도인행록’ 등 일련의 기록에도 김석윤이 보천교와 강증산계 미륵교 신자로서 포교하고 항일운동 모의를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1909년 제주의병을 김석윤이 의병장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혜달 스님은 당시 경찰 기록과 〈제주항일독립운동사〉를 근거로 반박했다. 기록에 따르면 1909년 제주의병의 의병장은 고승천·이중심으로, 특히 고승천은 김석윤 등과 더불어 광양에서 대장간을 차려서 무기를 제조했다. 김석윤은 10인의 창의자에 포함된 인물이었지 의병장은 아니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혜달 스님은 “봉려관을 비롯해 근대 제주 승려들의 승적부 이력은 허위 기재가 심해 교차 검증은 필수”라며 “그런데도 김석윤의 승적부 이력은 교차 검증 없이 사실로 인정해 그를 제주 불교의 중요한 승려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어산어장 인묵 스님 범음의 진수 만난다

4월 11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서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범음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묵 스님은 4월 11일 오후 3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범음-찰나의 궤적’을 개최한다.

인묵 스님은 “고희가 된 세납에 출가 후 50여 년을 닦아 온 범패와 작법을 후학들과 함께 펼쳐보이고자 한다”면서 “자랑스러운 불교 예술의 진수를 꽃피우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큰 기쁨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예능보유자 일응 스님에게 범패를 배운 인묵 스님은 어산작법학교 초대학교장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불교의례 한글화에도 기여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명상학회 제1차 정례회

4월 19일 숙명여대 음대서

(사)한국명상학회는 4월 19일 숙명여대 음악대학 강의실 103·104·105호에서 제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마음챙김과 예술: 예술과 명상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음악, 미술, 신체 동작의 예술 활동을 통한 몰입과 통찰로 마음챙김의 확장적 경험을 제시한다.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는 노인규 온담 예술심리상담연구소장의 ‘음악과 함께하는 호흡과 심상 경험’에서는 바이올린, 신디사이저의 라이브 연주를 감상하게 하며 명상을 체험한다. 음악, 미술, 신체 동작의 경험은 참가자들이 선택하면 된다.

이번 정례회는 (사)한국명상학회 수련 7시간이 인정되며 참가비는 회원은 6만원, 비회원 9만원이고, 학생(학부, 대학원생)은 30% 할인된다. 한국음악치료학회, 음악교육심리상담학과,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 회원도 30% 할인이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다.

신중일 기자

기자·아나운서가 함께 만드는 ‘시절인연’

BBS불교방송 봄맞이 개편
‘수행자들’ 등 새 프로그램도



불교방송이 새로 선보이는 토크 프로그램 ‘시절인연’의 진행자 정영석 기자(왼쪽)와 오승진 아나운서.

기자와 아나운서가 함께 특별한 인연담을 전하는 토크쇼가 새롭게 방영된다.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 이하 불교방송)은 “4월 6일부터 2026년 TV 프로그램 봄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불교적 지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자와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기대를 모은다. 정영석 보도국 기자와 오승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시절인연’(연출 이수종 PD)은 4월 7일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만나야 할 인연은 언젠가 결국 만나게 된니다’를 모토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불교방송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들을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첫 게스트로는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이 참여해 진솔한 인연담을 전할 예정이다. 정 기자는 “처음 진행을 맡은 정규 프로그램이라서 긴장도 많이 된다”면서도 “다양한 계층·연령대의 인물들과 시절인연을 맺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현대인의 고민을 데이터와 불교적 통찰로 풀어보는 신개념 멘탈 케어 토크쇼 ‘성진 스님의 번뇌연구소’가 4월 6일 오후 4시에 첫 방송된다. 데이터 맹신론자인 ‘닥터 킴(김명석 아나운서)’과 귀여운 AI 어시스턴트 ‘닥터 보리’가 차가운 통계로 번뇌를 진단하면, 마음 멘토 성진 스님이 따뜻하고 날카로운 지혜로 반전 처방을 내린다.

뇌과학과 경전의 만남인 ‘원빈 스님의 붓다 연대기’는 4월 6일 오후 3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성도부터 열반까지 45년의 세월을 연차별로 정리한다. 원빈 스님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이 걸어갔던 역동적이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경전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추적한다.

수행이라는 본질적인 행위가 우리 삶에 주는 위로와 통찰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끌어낸 ‘수행자들’은 4월 6일 아침 8시 20분에 첫 전파를 탄다.

불교방송은 “이번 봄 개편을 통해 불교 콘텐츠가 가진 강점인 인문학과 교양을 확대하고, AI시대를 선도하는 한국불교 중심 채널로서 한층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세계유산 팔만대장경 전승 방안 논한다

4월 9일 해인사 보경당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4월 9일 보경당에서 ‘팔만대장경, 그 찬란함’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역사·과학·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계승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려시대 몽골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의 정신과 의미를 학술적으로 살피고, 미래세대를 위한 계승·활용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이 ‘팔만대장경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이어 △팔만대장경 조성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해인사의 역할(신은제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상임연구원) △800여 년을 견딘 팔만대장경 판재의 과학적 특성(서정욱 충북대 목재·종이학과 교수) △경판에 새겨진 각수(刻手)의 전승과 계승 발전(최연주 동의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팔만대장경의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방안 모색(김상헌 상명대 역사컨텐츠학과 교수)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박용진 국민대 교수, 위광철 한서대 교수, 석혜영 경북대 강사, 조영훈 공주대 교수가 나선다.

종합토론 후 참석자들은 해인사 장경도감 판각학교와 팔만대장경 DB 구축 사업 현장도 참관할 예정이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은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혜가 담긴 인류 공동의 기록유산”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가치, 미래적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해인사가 주최·주관하고 조계종과 국가유산청, 경상남도, 합천군이 후원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線으로 禪을 그려내다
〈선〉 〈선〉

법관 스님, 가나인사아트센터 개인전

4월 8~21일, 2개 층서 개최
선 통한 색면추상 70점 선봬
"작품도 수행도 최선 다할 뿐
대중이 작품 통해 위안 얻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법관 스님의 연작 '선(2026, 왼쪽)'과 '선_즉심(2026)'.

시작은 '선(線)'이다. 불규칙적이면서도 규칙적인 선들의 반복된 조합은 이내 면을 이루며 하나의 세상이 펼쳐진다.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색면추상회화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법관 스님의 개인전이 열린다.

법관 스님은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4층 부산갤러리와 5층 경남갤러리에서 30번째 개인전 '선(禪) 2026'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님이 학고재 전속작가로 선정된 이후 열리는 첫 개인전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두 개 층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 층마다 작품의 콘셉트가 다르다. 부산갤러리에서는 기존 스님의 미학적 개념들을 정리한 작품들인 '선(禪)' 연작을 선보이며 경남갤러리의 작품들은 최근작들로 '즉심(卽心)'이라는 부제를 가진 연작들로 총 70여 점이 전시된다. '선' 연작들이 촘촘한 선들로 면을 이뤄낸다면 근작인 '즉심' 연작은 단순한 행위의 흔적들이 빚어낸 이미지로 새로운 표현을 보여준다.

화면 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선은 절제된 색채와 만나 질서와 울림을 만들고,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한국 전통 삼베를 연상시키는 직조감과 물성을 드러낸다. 이 같은 화면은 화려한 서사보다 응축된 호흡과 공력을 앞세우며 한 획 한 획 쌓아 올린 수행의 시간을 시각화하고 있다.

강릉에서 수행 중인 법관 스님은 특별히 그림을 배우지 않았다. 그랬기에 작품은 정형화되지 않으며 얽매임이 없다. 이는 작품활동과 함께 수행을 놓지 않은 선승(禪僧)이기에 가능했다.

법관 스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선이라는 범주를 떠나 본 적이 없다"면서 "모든 관계에서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임을 지향하며 본 모습과 무의식 속의 모습을 시각화하려 했다"고 스스로의 작품세계를 설명했다.

이처럼 법관 스님은 "작품은 자기 내면까지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지금의 마음이 즉심으로 오롯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이전의 마음을 절제하고 정제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마음은 그 이전의 마음과 만나서 현재로 전달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늘 지금 이전의 조건들을 놓쳐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 삼아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작품도 수행도 모두 생활의 일부"라며 "주어진 시간에 그 순간에 몰입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시 서문을 쓴 윤양호 전 원광대 교수 역시 "법관 스님의 작품에 표현되는 독창성은 절제와 즉흥성, 반복성, 비정형성, 단순성"이라며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자신의 정신성이 드러나는 정도에서 멈춘다는 것은 절제의 과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법관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인들에게 위안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스님은 "제 작품을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천, 소리 없는 노래를 부르다

박은신 작가 7번째 개인전

4월 8~13일 갤러리 이즈서


박은신 작가의 연작 '소리 없는 노래를 들려줄게(2026)'.

비천과 불보살 등 불교적 이미지를 차용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박은신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박 작가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 '견매화유감(見梅花有感)'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최근 천착하고 있는 '주악비천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리 없는 노래를 들려줄게' 연작부터 자신의 화두인 '시간'에 기반해 '덧없음과 영원' 사이에서 궁극의 답을 찾아가는 시선과 여정을 화면에 담은 작품들까지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안성 청룡사, 강진 무위사, 완주 송광사 등의 주악비천도에서 영감을 받은 비천 연작 '소리 없는 노래를 들려줄게'는 "각자에게 들리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란 모두 다를 것이기에, 어떤 음으로 한정 짓지 않은 음악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제목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이의 마음에 소리없는 노래로 다가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굳건해지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았다"는 작가의 바람을 담았다.

자신이 불교 이미지를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 작가는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려불화대전'에서 큰 감동을 받은 후로부터"라고 회고했다. 그는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순수회화로 재창조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됐고 이후 불교적 이미지를 소재로 현대적 해석을 하는 작품을 그리게 됐다"면서 "고려불화가 가진 '어둡지만 빛나고, 화려하지만 고요한' 감성을 제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 판화' 장르 개척 신예

해프닝서울, 조민경 개인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민경 작가의 작품.

'불교 판화'라는 독자적 장르를 개척해나가고 있는 조민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서울 해프닝서울은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민경 작가의 개인전 'No Umbrella Required(그러니, 우산은 필요 없습니다)'를 개최한다.

조 작가는 동국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불교미술과 판화 기법에 매료돼 '불교 판화'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신예다. 오랜 시간 예배와 신앙의 엄숙한 대상물로만 기능하던 불화(佛畵)를 동시대 시각예술의 주체적 소재로 치환하며 불교미술의 현대화라는 미학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가는 전통적인 복제 도구인 목판과 동판을 재해석한다. 태생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찍어내는 행위'에서 과감히 벗어나 칼끝에 깎여나간 목판의 물리적 상흔, 그리고 긴 시간 산(acid)을 머금고 서서히 부식되어 간 동판의 화학적 흔적에 주목한다. 수행과도 같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원판(Matrix)' 그 자체가 작품이 된다. 이는 단순한 도구적 쓰임새를 넘어 매체의 순수한 물성과 시간성에 닿고자 하는 치열한 예술적 실천이기도 하다.

조 작가는 "단단했던 금속마저 부식되고 마모돼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며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無常)의 철학을 고요히 은유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㊱ 안수정등(岸樹井藤)

15초의 꿀방울, 슬픈 중독의 굴레

岸 樹 井 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당나라 시대 승려 의정(義淨, 635~713)이 번역한 〈불설비유경〉은 '안수정등(岸樹井藤)'이라는 서늘한 우화로 그 물음에 답한다. 한 사내가 광야에서 미친 코끼리에 쫓기다 절벽의 칡덩굴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몸을 피한다. 발아래에서는 독룡이 입을 벌리고, 우물 벽에는 네 마리 독사가 도사린다.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생명 줄인 덩굴을 갉아먹는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머리 위 벌집에서 떨어진 꿀 다섯 방울이 입술에 닿자 사내는 위기를 잊고 황홀경에 빠진다.

이 비유는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 제11권에 기원을 두며, 동서양 사상가들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 우화를 인용하며,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하던 꿀방울(예술과 가족)이 더 이상 달지 않다고 고백한다. 파스칼은 인간이 존재의 비참함을 외면하기 위해 사소한 오락에 몰두하는 현상을 '전념'이라 부르며 경계했다. 고대 그리스의 '다모클레스의 칼' 또한, 머리 위에 말총 한 가닥으로 매달린 칼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통해 권력과 삶의 불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와 통한다.

오늘날 우리의 꿀방울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다. 우화 속 꿀이 다섯 방울이었다면, 현대인의 손안에는 수만 방울의 디지털 자극이 쉼 없이 쏟아진다. SNS의 '좋아요' 알림, 15초마다 바뀌는 짧은 영상(Short-form), 자극적인 가십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찰나의 감미로움에 취해 다가오는 세월(코끼리)과 밤낮으로 삶을 갉아먹는 시간(쥐)의 흐름을 망각한다.

화면이 주는 가상의 포만감은 우리를 '기분 전환'이라는 늪에 빠뜨린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잠깐의 무료함조차 참지 못해 화면 속으로 도피하는 모습은, 우물 속에서 꿀방울을 핥으며 위기를 잊는 어리석은 인간의 현대적 변주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돌봐야 할 내면의 평화와 곁에 있는 실재의 인연은 점점 메말라 간다.

'안수정등'의 가르침은 생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직시하라는 준엄한 죽비 소리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꿀방울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에 취해, 정작 덩굴을 붙잡은 손의 힘을 놓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화면을 끄고 고개를 들어 우물 밖 푸른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어떤 덩굴에 매달려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묻는 일, 그것이 이 슬픈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세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세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전쟁 딛고 다시 선 뽀디봉 마을에 손 내밀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④ '지구촌 생명살림' 캄보디아 현장 下

3월 20일 뽀디봉 학교서 캠페인
국경분쟁 피해로 학생 70% 복귀
초중등·공예학교 교육·생계 지원
방치된 학교 건물 외벽 도색작업도
일면 스님 "변화 과정 함께 할 것"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생명나눔과 현대불교가 공동 주최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이 3월 20일 삼라옹 뽀디봉 마을에 위치한 수레꾼 뽀디봉 초중등학교 및 공예학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전쟁으로 방치됐던 학교 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캄보디아 최북단 삼라옹 뽀디봉 마을. 태국과 국경을 맞댄 이 지역은 얼마 전까지 이어진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주민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한동안 비어 있던 마을에는 최근에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회복은 아직 진행형이다.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학교들은 학생의 약 70% 정도만 복귀한 상태다. 교실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고 건물은 곳곳이 낡은 채로 방치돼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다시 모여 앉아 글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삶을 다시 꾸려나가려는 뽀디봉 마을 아이들을 위해 한국 불교계가 손을 내밀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이하 생명나눔)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 이하 현대불교)이 공동 주최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이 3월 20일 삼라옹 뽀디봉 마을에 위치한 수레꾼 뽀디봉 초중등학교 및 공예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물품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뽀디봉 초중등학교와 공예학교는 재가불자 NGO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대표 오시환, 이하 수레꾼)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수레꾼은 2008년 초등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를 세웠다. 2024년에는 공예학교를 설립해 봉제반과 목공예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과 더불어 기술을 익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설립 2년 차에 접어든 공예학교는 이제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 재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쟁과 빈곤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 기자재 부족과 시설 노후화, 전쟁 여파로 인한 강사 수급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생명나눔과 현대불교가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역할을 자처하며 물품 지원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양 기관은 이날 쌀 1000kg, 라면 100박스 등 식료품을 비롯해 노트북 8대, 자전거 10대, 영양제와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노트북에는 교육 환경 개선의 의미가, 자전거에는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전달식에서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오늘 전달되는 물품이 학생들의 배움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띠엥힘 뽀디봉 공예학교 교장은 "이번 지원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주민들과 채워지지 않은 교실의 빈자리처럼 회복은 진행 중이지만 전쟁으로 무너진 일상 위에 다시 삶을 쌓아가는 지역 공동체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일면 스님과 한명우 대표는 전쟁으로 방치됐던 학교 건물 외벽 도색 작업에도 함께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또 공예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가방을 구매하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응원했다.

한편 생명나눔과 현대불교은 2024년부터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가 취약계층에 의료·교육·생계를 지원하는 국제구호 활동을 지속해왔다. 올해는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과 삼라옹 일대에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나누며하나되기, 로터스월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을 비롯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한마음선원,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리더스포럼 등의 후원으로 약 1억원 상당의 물품이 마련됐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맨 왼쪽)는 뽀디봉 초중등학교에 노트북 8대를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공예학교 봉제반에서 작업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생명나눔과 현대불교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삶을 다시 꾸려나가려는 뽀디봉 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 물품을 지원했다.

캄보디아 구호 이끈 일면 스님 "지속 후원 체계 구축"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과 삼라옹 일대에서 진행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을 통해 해외 구호 활동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이번 방문에서 사찰과 학교, 취약계층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물품 지원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지역의 교육·생활 여건을 살펴보며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일면 스님은 "현장에 직접 와보니 자료로 접할 때보다 상황이 훨씬 절박하게 느껴졌다"며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 환경 전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찰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 두 축을 함께 지원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접 본 현장은 환경 훨씬 척박"
사찰 중심 지역 공동체 지원 병행

특히 태국과의 분쟁지역이었던 삼라옹 뽀디봉 마을을 방문한 후에는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최근에서야 돌아와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학생들도 일부만 복귀한 상태였지만 배움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공예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을 보며 교육이 곧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달된 물품에 대해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며 "한국 불자들의 정성이 현지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나누며 주민들과 눈을 맞추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였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해외 구호 활동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면 스님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지원을 확대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장학 지원이나 시설 개선 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 지원과 생필품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면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현지 주민들의 모습이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됐다"며 "이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일면 스님이 뽀디봉 초중등학교에서 만난 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휘어버린 등만큼
잠들지 못하는 하늘이의 밤"

뇌병변 하늘이, 척추 90도 휘어 밤마다 고통…
척추보조기 교체 시급하지만 재활·수술비 마련도 막막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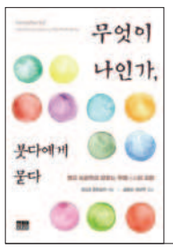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미국 스님 한국 표류기	현안	모과나무
2	49재 공덕과 의미	정의행	북도드리
3	밀린다왕문경	김현준	효림
4	불교영어-중급(1)	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화엄경 약찬게(작은해설)	용학	담앤북스
6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대원불교문화총서12)	노아라세타/백귀순	운주사
7	신심명 증도가 강설	성철스님	장경각
8	약사유리광여래 본원공덕경	상욱, 현안	위앙북스
9	용서는 나의 수행 칭찬은 나의 기도	정운스님	불교신문사
10	깨달음으로 이끄는 대장경 속 한마디	김형중, 허회태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 생각 공부	종범 스님	한생각
2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 숨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3	중관학 특강	김성철	오타쿠
4	부처님의 생애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쉬	청하
7	한글 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8	법구경 이야기(3)	무념,응진 역	옛길
9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10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지음	용화

자아 놓을 때 자유가 열린다



무엇이 나인가, 붓다에게 묻다
앤드류 올렌즈키 지음
강병화 · 하현주 옮김
한울
2만5800원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낸 '자아'
'나'는 감정·감각 흐름서 생겨
"무아(無我)는 허무 아닌 해방"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나는 누구인가?" 살면서 수없이 많이 떠올렸을 질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 질문의 전제가 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선 얼마나 깊이 성찰해 보았을까. 〈무엇이 나인가, 붓다에게 묻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無我)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간다.

저자 앤드류 올렌즈키는 30여 년간 불교학자이자 명상 지도자로 활동해 온 이력답게, 초기 불교의 심오한 사상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것은 불교 교리 가운데 가장 난해하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인 '무아'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자아'라는 감각 자체를 해체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중심이 존재하며, 그것이 생각하고 선택하며 삶을 이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고통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들의 집합이며, 순간순간 구성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 책은 이러한 통찰을 단순한 교리 설명에 머물지 않고, 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비유와 심리학적 설명으로 풀어낸다.

예컨대 저자는 비가 내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들어 자아의 실체성을 비판한다. 과거에는 비를 내리게 하는 '행위자'를 상정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온도와 습도 등 다양한 조건이 맞물려 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안다. 자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이다. '나'라는 고정된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인식, 감정과 반응이 얽히며 그때그때 '나'라는 경험이 생성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저자는 '나'를 하나의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마음 순간'의 흐름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약 100억 개에 달하는 미세한 심리적 사건들이 이어지며 '나'라는 연속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어디에도 고정된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우리가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짓는 정체성조차 실은 순간적인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어떤 대상을 갈망할 때는 '원하는 나'가, 어떤 상황을 혐오할 때는 '싫어하는 나'가 형성된다. 즉 자아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불안, 우울, 중독 등 현대인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는 데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초기불교의 심리학 체계인 아비담마를 현대 심리학과 연결한 점도 주목된다. 저자는 마음이 대상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미세한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중심을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많은 이들이 무아를 허무주의나 자기 부정으로 이해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그것이 자유와 자비로 나아가는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나'라는 경계를 절대화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고 강화하려 애쓰며 고통에 빠진다. 그러나 그 경계가 실체가 아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계성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개인의 심리적 평온에 그치지 않는다. 자아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진다. '나'와 '너'를 가르는 이분법이 약해질 때, 자연스럽게 자비와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다. 저자가 말하는 무아는 개인적 해탈을 넘어, 사회적 치유로 확장되는 실천적 지혜인 셈이다.

우리가 굳게 믿어온 '나'라는 개념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매듭이 풀리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과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출근길 바꾸는 명상의 힘



나를 알아차리는 법 내려놓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신기율 지음
어웨이크
1만8500원

일상서 활용 가능한 명상 안내서
몰입-이완-통찰-회복 4단계 구성

"명상은 삶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은둔의 즐거움〉, 〈직관하면 보인다〉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브 채널 '신기율의 마음찻집'을 운영하는 저자의 명상 안내서다.

저자는 번아웃과 불안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심리적 방패이자 내면의 무기'로서 명상을 제안한다. 명상이 당장 오늘 밤의 숙면과 내일 아침 가벼운 출근길을 위한 일상 계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흩어진 의식을 모으고(몰입), 긴장을 풀며(이완), 본질을 꿰뚫어(통찰),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회복) 4부로 구성됐다. 저자의 설명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모호하던 명상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트라와 긍정어를 이용한 '소리 명상', '감사합니다'를 암송하는 '감사 명상', 걸음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담았다.

각산 스님(한국명상총협회장·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은 "이론과 체험, 통찰이 균형 있게 결합된 드문 저작"이라며 "마음이 지쳐 방향을 잃었을 때 누구나 삶 속에서 명상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로 풀어낸다"고 추천사를 남겼다.

저자 신기율 작가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선학(禪學)을 전공했고 현재 명상교육센터 '마인드풀링'을 운영하며 '마음치유 명상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달리기, 몸으로 읽는 경전



스님의 달리기
지찬 스님 지음
유노북스
1만7000원

눈앞에서 초록색 신호등이 깜빡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기 시작해 가까스로 길을 건넌다. 그런데 숨이 가쁘고 땀이 줄줄 흐른다. 고작 이 정도로? '이런 체력으로 수행은 어림도 없겠다'는 위기감에 운동을 시작했다. 달리기다.

처음엔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돌고 차차 거리를 늘려 나갔다. 어느 날 '오늘은 조금 더 뛸 수 있겠다'는 생각에 7㎞쯤에 이르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만 멈출까 생각한 순간, 무언가 밑동 빠지듯 내려가며 호흡이 수월해지고 온갖 망상이 일시에 고요해졌다. 선원에서 수행할 때 몰입에 들었던 그 상태였다. 그 뒤로 달리기는 스님의 일상이 됐다.

〈스님의 달리기〉는 지찬 스님이 달리기를 시작하며 겪은 몸의 변화와 마음의 흔들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삶의 태도를 담은 에세이다.

"흐트러진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들 수 없다"는 자각으로 운동을 시작했지만 조금만 뛰어도 터질 듯한 심장과 욱신거리는 무릎에 좌절하기를 수차례. 하지만 좌선 수행으로 쌓은 '누적의 힘'을 믿으며 달리기 루틴을 찾아냈고 마침내 마라톤까지 도전하게 됐다. 그렇게 지금까지 1만1450㎞가 넘는 거리를 달렸다.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하며 여러 장애도 만났다. 훈련을 쉬면 폐활량이 떨어질까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수행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달리기를 통해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마음이 또 다른 속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깨달은 후 마음을 바꿨다. 기록을 확인하되 집착하지 않고, 몸의 반응을 살피되 평가하지 않게 되면서 달리기는 또 다른 수행이 됐다.

스님에게 달리기는 몸을 단련하는 일이자 동시에 마음을 비춰보는 일이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질 때면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무상(無常)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힘들다는 감정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몸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오늘 하루치의 달리기'에 집중한다.

"길 위에서 회복한 것은 체력보다도 감각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 그 힘 덕분에 다시 수행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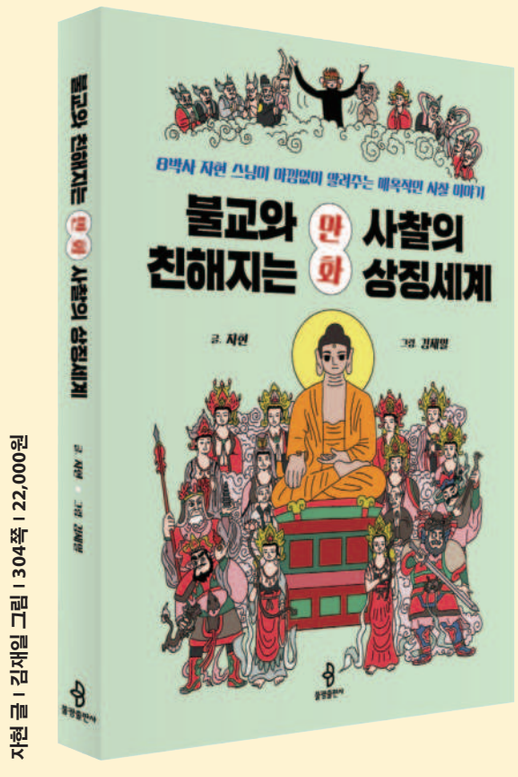
'승복 입은 러너' 지찬 스님의 마음 수행기
"달리면서 부처님 말씀 다시 배웁니다"

스님은 책에서 수행자란 번뇌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마라톤 대회 소식에 설레고, 기록에 기뻐하며, 때로는 욕심에 흔들린다. 그러나 그 마음을 미워하거나 감추지 않는다.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하고 알아차릴 뿐이다.

쉼을 잃어버린 채 속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지찬 스님은 말한다. 남의 기준에 맞춰 달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속도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수령 기자

불교와 친해지는 특급 마법이 시작된다!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아낌없이 알려주는 매혹적인 사찰 이야기!
문체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세계 上·下』
그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다!
청소년도 재미있게 읽고, 성인도 새롭게 배우는 가장 쉬운 불교 인문학!
복잡한 설명은 줄이고 이야기와 재미는 더해 단지 즐겁게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세계관이 저절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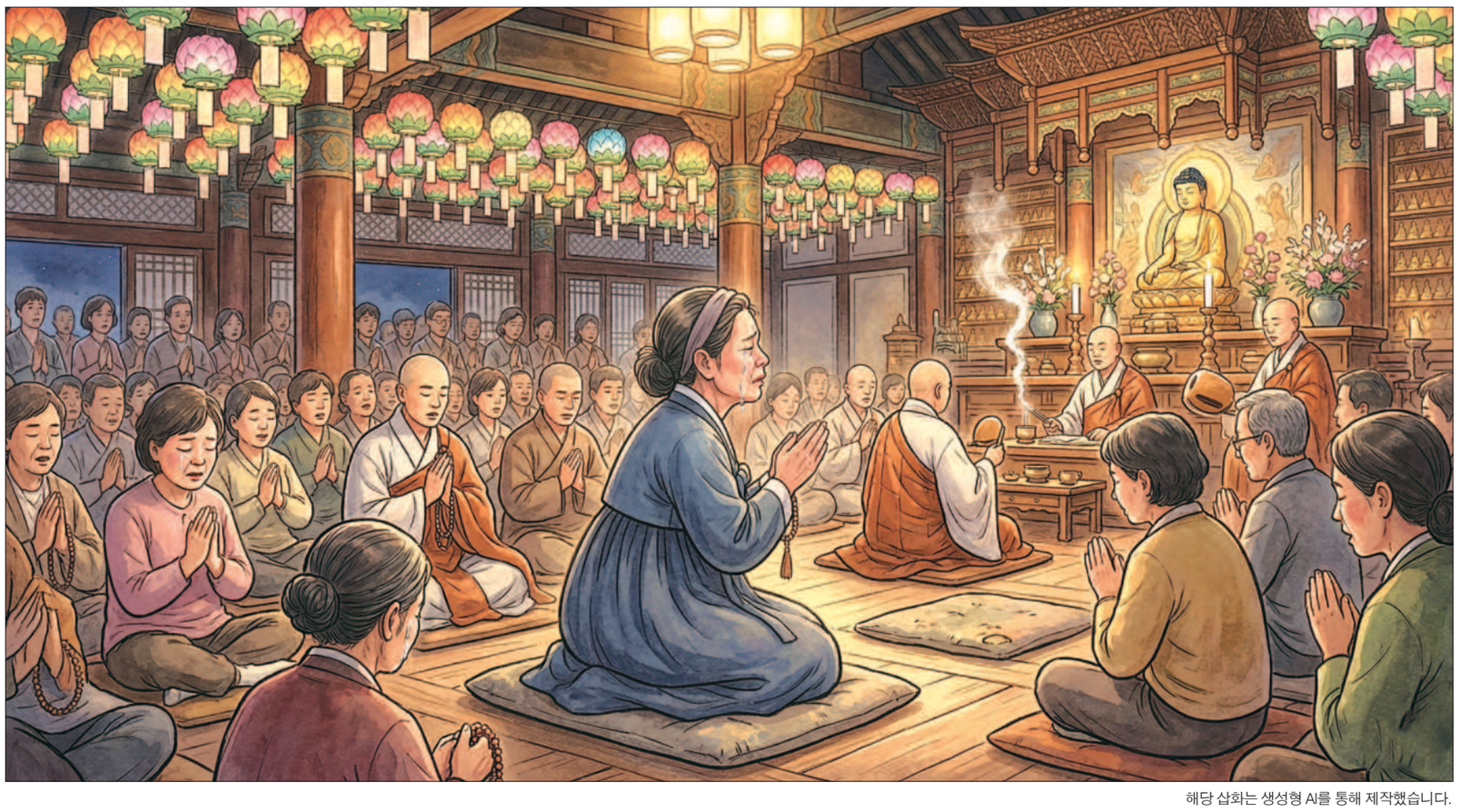
출간 전부터 기대를 모은 화제작!
불교 교양 만화의 최고봉!
불교와 친해지는 만화 사찰의 상징세계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불교와 친해지는 만화 사찰의 상징세계
8백사 자현 스님이 매혹적인 사찰 이야기
글 자현 그림 김재일
자현 글 | 김재일 그림 | 304쪽 | 22,000원

사찰의 상징세계 上 下
자현 지음
320쪽 | 25,000원(상권)
312쪽 | 25,000원(하권)

여러 날 반복하며 꾸준히 이어가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⑦ 참회 방법과 108배 후 염불·발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모든 악업, 현재→과거, 기억 순으로 참회
감정·망상 휘둘리지 말고 절 여러 번 반복

참회 중 소원 금지, 잘못 기억·메모 필요
법회서 염불 정근 시 소리 낮춰 참회 가능

108배 참회 후 자리 앉아 염불 5분 이내로
참회 공덕 회향하며 향후 신행 각오 다져야

⑶ 참회할 항목이 여러 가지일 때는 앞에서 설명한 항목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다. 또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일이 여러 건 생각날 때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일을 먼저 참회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과거의 일을 참회한다. 그러나 숙달이 되면 꼭 이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으며, 먼저 생각나는 사항을 먼저 참회하고 그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참회하면 된다.

⑷ 참회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악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가까운 과거의 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랜 옛날의 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누구에게 한 일이든 상관없이 참회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모든 일이 대상이 된다.

⑸ 참회하지 않고 감정이나 망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고 있던 사실을 기억에 떠올리게 되면 참회가 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생각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누구와 싸웠던 기억을 떠올렸을 때, 절을 하면서도 참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참회가 숙달되지 않은 초기에 이런 현상이 심하다. 이럴 때는 자신이 악업을 지었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면서 진실한 참회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기억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다. 어느 정도 참회가 익숙해지면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⑹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참회가 되면 다른 사항을 기억해서 참회한다. 처음에는 그 일에 대해서 참회가 됐는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참회를 계속하다 보면 참회에 대한 진지함이 떨어지거나 약간 지겨운 생각이 들 때가 온다. 이때 다른 사항에 대한 참회로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악업에 대한 참회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會)의 참회에서는 그 일에 대한 참회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음 기회나 다른 날 참회를 할 때는 같은 사항에 대한 참회를 다시 계속해야 한다.

⑺ 한 가지 악업에 대해서 절을 한 번 하는 것으로 그 행위에 대한 참회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가벼운 악업이라도 대개는 절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참회해야 하고, 대부분의 악업은 108배뿐만 아니라 여러 날 또는 몇 개월을 계속해야 참회가 제대로 된다. 매우 무겁고 오래된 악업인 경우에는 몇 년이 걸려야 참회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⑻ 울음이 나오면 참지 말고 울어도 된다. 부처님께 참회하면서 우는 것은 자신이 정화되는 것이므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억지로 울려고 할 필요는 없다.

⑼ 참회하는 중에 소원을 빌면 안 된다. 불자들이 흔히 참회나 염불할 때 절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회하는 중 참회에 집중하지 않고 소원을 비는 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라 집착에 의한 망상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참회의 공덕을 약화시킨다.

참회 도중에 소원을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보겠다. 군대 간 아들이 먼 곳에 복무하고 있을 때, 아들 면회를 하러 가면서 자가용을 운전해서 간다고 하자. 가는 도중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아들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안내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혹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들 생각이 나더라도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참회할 때 소원 비는 것도 이와 같아서 참회를 통해 공덕을 쌓는 것을 방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빌기만 하는 식의 기도가 계속되면 공덕은커녕 갈수록 집착만 커지게 된다. 반야 참회를 통해서 소원 성취를 바란다면, 참회할 때는 소원을 빌지 말고 참회에 집중하여 공덕을 쌓고, 그런 다음 그 공덕을 회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음 편의 회향 관련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⑽ 참회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참회를 시도할 때, 초기에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참회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의 과거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 참회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참회를 하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스스로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습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적인 마음이 참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참회할 게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참회를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로,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참회 대상 중의 탐욕과 성냄 항목 설명까지를 먼저 정독한다. (※이 설명은 기도 순서 설명 뒤에 이어진다.) 그리고 참회 기도 시간에는 자신의 악업이 생각날 때까지 "부처님, 참회합니다"를 반복하거나 염불을 하면서 그냥 절을 계속한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참회 대상이 되는 악업을 지은 적이 있는지 자주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 과거의 잘못이 문득 생각날 때 그것을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었다가, 기도 시간에 그 내용을 대상으로 참회를 시도한다.

이렇게 노력하면 오래지 않아 참회해야 할 일이 점점 기억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08배로는 도저히 참회를 다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가 돼야 비로소 참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참회가 제대로 시작되면 참회가 된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

방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매일 108배를 한다면, 빠른 사람은 며칠 내로 참회가 시작되고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참회가 진행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빨리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⑾ 사찰의 불공이나 기도 법회에 참석했을 때 반야 참회를 하려면 염불 정근 시에 하면 된다. 절을 하면서 혼자만 알 수 있게 적은 소리로 "부처님, 참회합니다"를 반복하면 다른 대중에게 방해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참회를 할 수 있다.

④염불

108배 참회가 끝나고 나면 자리에 앉아서 염불을 한다. 108배가 숙달되기 전에는 염불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5분 이내로 하면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⑤발원

발원 순서에는 참회한 공덕을 회향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원과 향후 신행의 각오를 다지는 본래적 의미의 발원, 두 가지가 포함된다. 원래 발원이란 원을 세운다는 뜻으로 후자의 의미가 중심이었으며, 축원과 발원은 서로 다른 별개의 신행으로서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는 통상 발원이라고 하면서 이 두 신행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도 순서에는 일단 발원이라고 표기하고 그 안에서 축원과 발원을 나누었다. 또 축원문도 발원문에 함께 포함시켰다.

다음 호에서는 회향, 축원, 발원을 차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⑦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등운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198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삼보사, 서악사, 연미사 주지를 지냈으며 제15·16·17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고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자연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한다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천년을 버텨온 고목도, 정갈하게 앉은 기와도 한순간의 화마(火魔) 앞에서는 속절없었다. 지난해 3월, 경북 북부를 삼킨 산불은 고운사 사찰림의 97%를 앗아갔고, 보물급 전각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고운사는 참사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운사가 선택한 길은 '인위'가 아닌 '순리'다. 억지로 나무를 심는 대신 자연의 회복력을 믿는 '자연 복원'을 택했고, 전각도 과거의 복제가 아닌 현대인의 삶을 담아내는 방식의 복원을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고운사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듣기 위해 본지 한명우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9일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만났다.

Q 2020년부터 교구장 소임을 맡아 오셨습니다. 오랜 기간 교구본사를 이끌며 느끼신 변화와 소회가 궁금합니다.

고운사는 그동안 본사와 말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운영해 왔기에 개인적인 소회보다는 대중의 화합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보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는 이 아픔을 수습하고 도량을 여법하게 복원해 나가는 데 모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Q 대웅전과 템플스테이관은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했고, 발 빠른 대처로 많은 성보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의 경과와 현재 복구 상황이 궁금합니다.

인연 따라 맡겨두면 되지 억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 법은 '현재'에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1년 전 난 불을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시대에 맞는 건축 양식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시대의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선불교가 왕성할 때는 건축이 단출했으나 조선시대로 오면서 장식적으로 복잡해졌지요. 그것이 각 시대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첨단 재료와 공법이 뛰어난데도 여전히 옛 양식으로만 짓고 있습니다. '현대 양식'이 없는 셈이지요. 문화유산은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산이 아닌 건물들은 현대적 감각과 기능을 담아 변화를 주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통이 될 것입니다.

Q 스님께서 제안하신 '전통 양식의 복원과 현대적 명상센터 건립'이 이 같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복원 원칙은 무엇입니까?

30~40년 전에는 온 가족이 한방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었지만, 지금은 개별 생활 위주로 건축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절에 들어오는 이들도 그런 공간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100년 전의 불편한 공간에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지을 공간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옛 공양간 자리에는 현대적인 명상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세계기념물기금(World Monuments Fund)에서 고운사를 방문해 자연재해로 소멸되는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이들과 협력해 한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이지 않은, 누구나 편히 쉬며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 합니다.

Q 고운사의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대신 자연 복원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현실을 직시한 결과입니다. 의성 지역은 화산 지형이라 산 전체가 바윗덩어리입니다. 흙이 고작 10~20cm밖에 안 됩니다. 그 얕은 흙 위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경사가 급한 이곳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자원 낭비이자 환경 훼손입니다. 자연에 맡겨두면 환경에 맞게 나무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싫어하듯, 자연도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1년이 지나니 산 능선을 따라 풀과 나무가 되살아나고 삵, 수달, 담비 같은 야생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길가 20m 정도만 벌목하고 있습니다. 벤 나무들은 건축용 규격에 맞게 재단해 열처리로 병해충 방제와 건조를 진행한 뒤, 사찰 복구 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고운사는 고금당선원과 화엄승가대학원을 통해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행 전통의 계승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행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출가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옛 방식의 큰 선원만 고집할 수는 없기에, 부처님 당시처럼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만들려 합니다.

산불 상흔 딛고 사찰림 자연 복원
전통 잇되 현대적 건축 양식 모색
명상센터 · 신도시 포교당 건립 추진
정혜쌍수 전통 계승 속 변화 모색
미래세대 · 문화 포교로 공동체 복원

화엄승가대학원은 수행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학원장 등현 스님이 인도 등에서 공부하고 온 만큼, 부처님 수행 방식을 원어 그대로 번역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원 수좌 스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강의를 듣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체계적인 교학 기반을 갖추고 정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통은 지키되 사찰마다 특색 있는 방식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Q 교구 운영과 지역 포교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말사들과는 합리적인 분담금 배정을 통해 포교와 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임 교구신도회장이 취임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각종 복원은 불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안으로 안동 신도시(도청 인근)에 포교당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기관들에 맞는 신행 활동 공간을 제공하려 합니다. 포교에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량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오는 신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사찰음식체험관 운영과 최치원문화제 개최 등 문화 사업도 활발합니다. 불교유산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10월 셋째 주에 사찰음식 축제를 엽니다. 사찰음식 축제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말사 스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20여 가지 사찰음식을 나누며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치원문학관과 연계한 최치원문화제 역시 불교가 대중에게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Q 출가자 감소와 청소년 포교에 대한 고민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고운청소년재단이 지난해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 포교와 복지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탐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이 많은 세상일수록 불교가 필요하지만, 그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자극적인 즐거움이 너무 많습니다. 불교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를 넘어, 이들의 삶에 깊이 있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Q 마지막으로 고운사를 응원해 주시는 불자들과 국민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운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산불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정성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정성이 크기에 사찰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리라 믿습니다. 서두르기보다 바르게, 정성을 다해 복원해 고운사가 다시금 모든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전소된 전각 뒤로 새롭게 풀이 자라나고 있는 고운사 전경. **사진 제공=그린피스**



산불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5월 5일, 치유와 희망을 발원하는 고운사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올해 1월 30일 열린 '제83차 교구종회 및 교구신도회장 이·취임식'에서 본말사 사부대중은 지역 포교를 위한 새로운 정진을 다짐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경내 현장을 오가느라 고무장화가 일상이 됐다. 대담 후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와 함께한 등운 스님.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2026년 4월 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73호 | 14 | 전면광고

입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며 몸으로
계를 범하지 않으면 능히 도를 얻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 병원서 10분거리(안강 방향)
- 부지 : 250평(+국유지 200여평 밭 사용중), 명당 중의 명당(서출 동녁 수)
- 법당 : 8각 판넬 법당, 요사채(적벽돌)1동+1동, 사물실 1동, 정남향
- 특징 : 마르지 않는 1급 청정수(가재들 삶), 2차선 도로에서 산으로 100m 끝집, 버스(20분 격), 정류장은 절에서 150m, 수도, 전기, 슈퍼 도보 500m, 대형슈퍼 차로 10분 2개, 동국대 병원 20분/경주 중앙시장 20분
- 가액 : **3억 5천(5천내렸습니다)**/부동산 사절

010-8847-4610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가포동
- 임야 2000평, 주방 2, 요사체 2, 실내화장실 2, 각각 20평씩
- 약사여래좌상, 5층석탑1개
- 시내8분거리 / 노스님 몸이 아픔
- 사찰 아래 아파트 단지 조성중
- 자연석굴 산신당
- 금액 : 1억6천 (가격 절충)

010-4192-03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08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1층은 세를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시약로 반야암
- 법당 포함 38평
- 가액 : 5000만원

010-9154-665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에서 20분
- 총면적 840평
  대웅전 21평(목조), 산신각5.5평
  요사채 31평(황토벽돌)
- 야외 화장실, 공양간
- 가격 : 6억5천

010-2333-3005

농원(급)안내

- 위치 : 김천 보건대 앞
- 부지 : 864평
- 7년생 140주(자두)
- 작업실 10평
- 가액 3억 8천
- 특징 : 대로변 정사각형 부지

010-8560-9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300평, 법당 23평, 종무소 10평
- 마애불, 법당4평, 산신각, 용왕전
- 태양광-태양열 설비 완비
- 가액 : 3억 3500만원

010-5097-528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불광동 전철역 옆
-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 법당 30평, 방 2개

스님 이민관계로 시설비 천만원에 법당 에어컨, 냉장고 일체 드리고 갑니다

010-5399-122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생비량면 선운암
- 종교용지 : 약 247평
- 전통기와 법당 : 약25평. 단청, 탱화, 삼존불을 모시고, 상단, 신중단, 영가단으로 구성
- 요사채 : 약 30평, 방 3개, 식당 1, 화장실 2개, 창고 2개 / 약15평
- 사찰 접경 임야 : 약 577평
- 부도탑2, 사찰경내 석조미륵좌상 1개, 탑1개, 돌탑4개, 주차장 포함
- 가액 : 7억 5천만원

010-2351-3013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사 찰 안 내

- 산청군 시천면 996번지 345평 / 996-3 56평
  산 11-8 12평 / 산 11-7 13평
  지리산 청학동 주위 해발700고지
  청학동 15분거리
- 명당자리(풍수지리)/ 공양간(수각)
  -자연공간으로 계곡물 사용(신선하고 넓음)
- 주위에 계곡 및 실내에서 본 전망 정말 좋음
- 종교용지 427평(임야90평)
- 법당20평, 요사체80평, 거실20평, 황토방7개. 공양간(수각), 요사채 위 법당있음(종교용지)
- 주차 20대가능 • 금액: 상담후 결정



010-5204-0050

토 굴 안 내

- 대지 : 약 2천평
- 법당1개 산소자리 명당
- 6m 약사여래불 5층 탑 2개/3존불 모셔져 있음(용궁전)/석불 대형 산신불 1개/요사채 2동(소 우사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급매매(스님 연세)
- 충남서천군 문산면 판문로 378번길 48의 47호 약수암

010-3922-777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지내동 (지내역 5분거리) 활천중학교옆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4억 9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사찰 마이크 전문

美 MeCalley 유, 무선 마이크
전국 사찰 총판 !!

시중에 없는 최고급
美 Mecalley 무선마이크
◆ 1인용 : 350,000원
◆ 2인용 : 455,000원
(인터넷가 : 96만원)

염불전용 탁상 마이크

60cm 이상 거리에서 힘있고, 맑은소리 자체에서 소리조절
◆ 가격 : 155,000원

MeCalley KSM-97S

최고급 프로용 유선마이크
휴대용 알미늄가방 증정
◆ 가격 : 195,000원

초 원거리 염불전용
日製 유선 콘덴서마이크
◆ 가격 : 125,000원

취 급 품 목
사찰, 앰프설치, 이전전문
각종 앰프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제조, 판매
대출력 특수 스피커 제작

사찰음향컨설팅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9 (406호)

2026년 4월 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73호 | 15 | 전면광고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혀 재앙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천신책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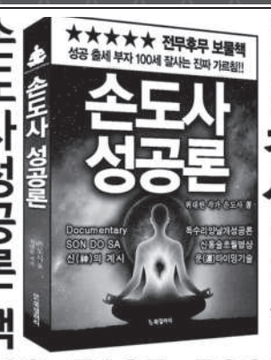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궁금하신 내용, 다 풀어 드립니다

심리치유, 사주, 신점, 운세
혜성 보살
010-3674-2533

손도사성공론 꼭 읽어봐주세요 책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010-5105-50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특허 성불타올

40×80cm / 160g / 30수 / **6,000원**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 644-110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운치있고, 5년간 자리잡은)
쌍화차 전문 찻집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 종목:소문난 쌍화차 전문 외 수제차, 커피, 팥빙수 등
- 규모:대지 300평, 건평 1,2층 50평 씩(100평)
- 보증금:2000/160, 3000/150 1층만 사용, 조정가능
- 권리금:상화차 및 시설 등 조정가능
- 특징:천년고찰 및 대형주차장 무료사용

010-2626-515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SINCE 2002

NAVER 영옥사리 검색

효율 높이고 불필요한 확장 멈춰야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⑦ '우주 AI 데이터 센터' 계획이 말하지 않는 것들

달에 서버를 구축한다고?

"지구 궤도에 100만 개의 AI 데이터 센터 위성을 배치하고, 나아가 달 표면에 AI 위성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 발언은 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자신의 AI 기업 xAI를 합병하며 발표한 전례 없는 구상이다.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00만 기의 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지구의 전력망과 냉각 시스템이 AI의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 아예 무한한 태양에너지가 있는 우주로 나가겠다는 논리다.

합병 기업의 가치는 이미 1조2500억달러로 평가됐고, 올해 안에 예정된 상장을 앞두고 투자 시장은 열광하고 있다. 언뜻 들어 보면 머스크가 그리는 청사진은 매혹적이다. 우주에는 전력 문제가 없다. 태양 패널을 펼치면 24시간 끊임없이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고, 영하의 진공 속에서 냉각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주민 민원도 없고, 토지 수용 문제도 없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궤도 데이터 센터의 잠재 용량은 100기가와트에서 장기적으로는 1테라와트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현재 지구 전체 데이터 센터 용량의 수십 배에 해당한다.

달 공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달에서 위성을 제조하면 지구의 강력한 중력을 벗어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전자기 투석기로 완성된 위성을 궤도에 올리면 로켓 발사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수치만 보면 잘 들어맞는 듯하다.

하지만 이 계획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100만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면 막대한 로켓 발사가 필요하다. 머스크는 달 공장과 전자기 투석기로 이 문제를 우회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공장을 짓기 위한 장비와 핵심 부품은 결국 지구에서 쏘아 올려야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위성은 영원하지 않다. 수명이 다한 위성은 결국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져 소각된다. 100만 개 규모라면 3분에 하나꼴이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루미늄 산화물과 리튬은 성층권에 축적돼 오존층을 훼손하고 대기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달 공장은 발사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재진입이 만드는 대기 오염은 해결하지 못한다.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정작 대기를 오염시키는 역설이다. 이것이 머스크의 대담한 구상 뒤에 드리운 그림자다.

문제의 해결인가, 도피인가

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올려야 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AI의 에너지 수요가 지구의 감당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는 중소 도시 하나와 맞먹으며, AI GPU의 전력 수요는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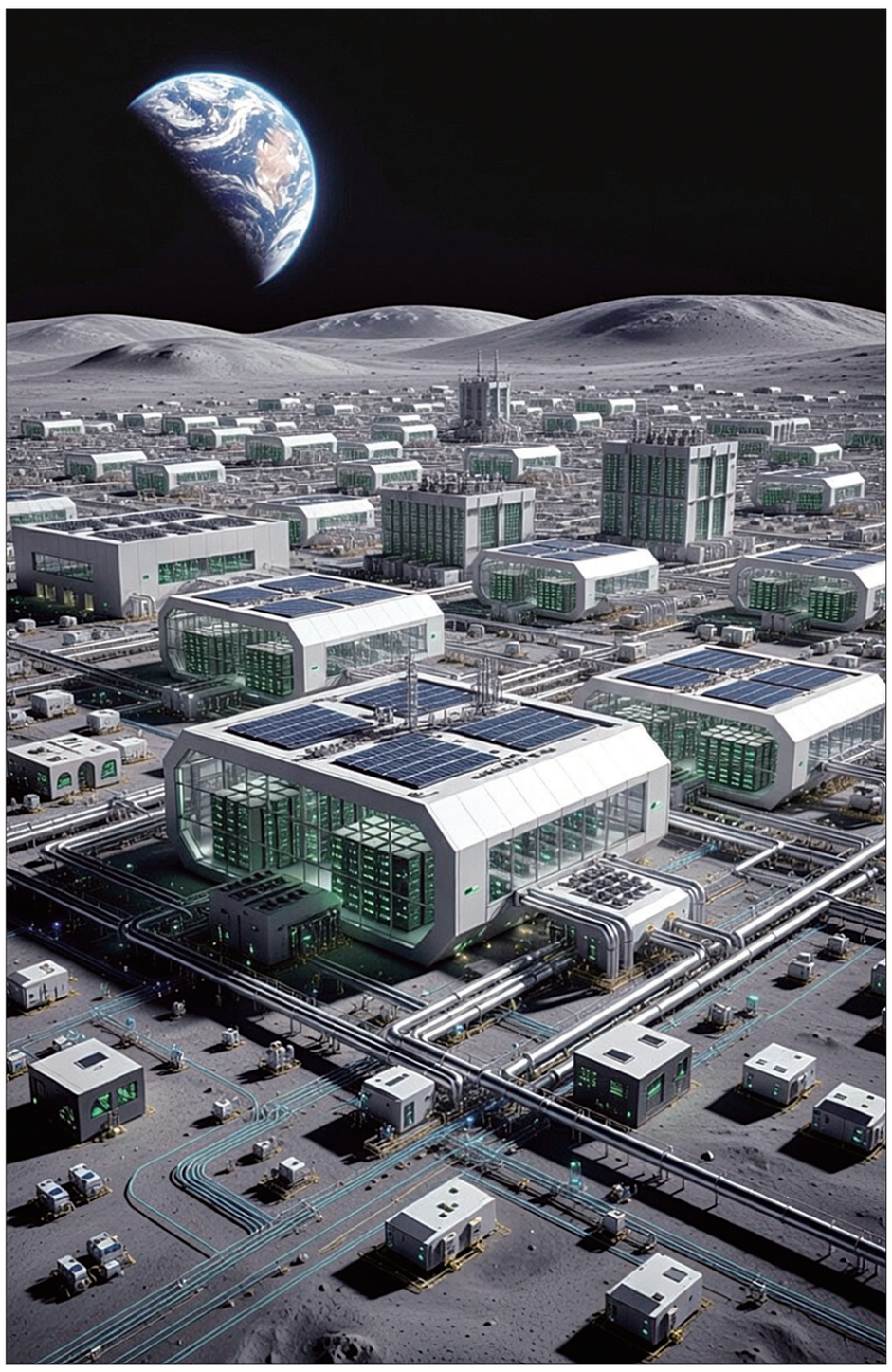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이 "지구에서 안 되니 우주로 가자"인 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는 마치 집 안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옆집 마당에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구에서 AI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고 디지털 절제를 실천하는 대신, 무한 확장의 길을 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도피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구상이 지구 위의 불평등을 우주로까지 확장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

> **전력 한계 넘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 **지구 구하려다 환경 해치는 역설 보여**
> **우주까지 간 불평등·밤하늘의 사유화도**
> **'의보' 환경의 소모가 존재 위기 야기해**
> **미래 위해 붓다의 절제와 중도 되새겨야**

적으로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저개발 국가들이 밀집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남반구의 소외된 국가들)'의 에너지 빈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조달러를 들여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올리는 것은 우선순위의 전도다. AI의 혜택에 대한 접근권이 이미 소수 빅테크 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그 인프라가 문자 그대로 지구 밖으로 나간다면, 기술 격차는 이제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 장벽으로 고착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인류 공공의 자산인 밤하늘에 대한 사유화 문제로 이어진다.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본 역사는 문명 자체의 역사다. 그러나 수많은 데이터 센터 위성이 궤도를 점령하면, 거대한 위성들이 태양 빛을 반사하며 밤낮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게 된다. 수십억달러를 투입한 첨단 천문대들이 위성 줄무늬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수천 년간 인류가 공유해 온 문화적·과학적 공유재인 밤하늘을, 한 기업의 사업 계획이 독점하고 훼손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지구 궤도에 100만 개의 AI 데이터 센터 위성을 배치하고, 나아가 달 표면에 AI 위성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 발언은 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자신의 AI 기업 xAI를 합병하며 발표한 전례 없는 구상이다.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00만 기의 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지구의 전력망과 냉각 시스템이 AI의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 아예 무한한 태양에너지가 있는 우주로 나가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계획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AI Grok 생성 이미지

의보(依報)는 정보(正報)와 다르지 않다

불교 교학에는 '정보(正報)'와 '의보(依報)'라는 한 쌍의 개념이 있다. 정보란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주체, 곧 중생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리킨다. 의보란 그 생명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환경과 국토를 가리킨다. 달리 말해 '나'가 정보이고, '내가 발 딛고 사는 세계'가 의보다.

8세기 당나라, 천태종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형계 담연(荊溪 湛然, 711~782)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존재의 실상을 꿰뚫는 정교한 철학 체계를 세웠다. 그는 6세기 천태 지의(天台 智顗)가 체계화한 교학적 토대 위에서 그 사상을 계승하면서, 현상계의 모든 대립을 극복하는 열 가지 '불이(不二)'의 원리를 담은 〈십불이문(十不二門)〉을 저술했다. 그 여섯 번째 문(門)이 바로 '의정불이(依正不二)'다. 이는 생명 주체인 정보와 그가 발을 딛고 있는 환경인 의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관점이다.

주체의 마음이 곧 환경을 규정하고, 환경의 변화가 곧 주체의 업을 반영한다는 이 연기적 통찰은 오늘날 우주로 눈을 돌리는 인류에게 준엄한 질문을 던진다. 이 관점에서 머스크의 구상을 보자면, AI 연산이라는 욕망, 즉 '정보'의 산물이 먼저 있고, 대기권, 궤도, 달 표면이라는 '의보'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속된다. 지구의 전력이 부족하면 궤도로 밀어내고, 궤도가 포화하면 달로 밀어낸다. 환경은 한없이 소비되고 교체되는 자원이 된다. 의보를 파괴하는 것은 곧 정보, 즉 존재의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오존층이 깎여 나가고, 궤도가 쓰레기로 뒤덮이며, 달의 45억 년 된 고요가 깨어지는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연기의 법칙이 말해 주듯, 그것은 존재의 위기다.

물론 머스크의 이런 류의 구상이 그만의 타임라인대로 실현된 적은 거의 없다. 머스크는 2017년에 "2022년까지 화성에 무인 화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2026년 현재 이 계획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고, 100만 개 궤도 데이터 센터도 서류 위의 숫자에 가깝다.

그러나 비판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서사 자체가 투자 시장을 움직이고, 무엇이 인류의 진보인지에 대한 상상력을 틀 짓기 때문이다. 달 공장이 진지한 의제가 되는 순간, "AI 에너지를 줄이자"라는 제안은 퇴행으로 치부된다.

붓다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남겼다. 〈불유교경(佛遺教經)〉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많이 욕심내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구하는 까닭에 괴로움도 많다. 적게 욕심내는 사람은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으니 이런 근심이 없다." 이어서 붓다는 말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울지라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의 궁전에 있을지라도 뜻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을 포기하라는 권고가 아니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더 적은 에너지로 필요한 만큼만 연산하며, 불필요한 확장을 멈추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절제이고, AI시대의 중도(中道)다.

지구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궤도로, 궤도가 부족하면 달로, 달이 부족하면 화성으로. 만족의 지점이 없는 욕망은 불교가 말하는 고통의 발생 구조 그 자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울지라도 편안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달에 올라갈지라도 뜻에 맞지 않을 것이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약자 보호 신선, 사찰벽화로 남다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⑦ 조용한 카리스마, 여동빈(呂洞賓)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벽화 중 여동빈과 유자선(조선 후기).


영락궁 신선 벽화 중 여동빈과 종리권(중국 원대 13~14세기).

'조용한 카리스마'라는 신조어가 있다.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이를 지칭하는 용어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조용한 카리스마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모두를 집중시키는 사자후(獅子吼)를 비롯해 자비로우면서도 영웅의 면모까지 지닌 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문화권에는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교는 어떨까? 앞서 우리는 익살맞은 신선 유해섬을 살펴봤다. 이번 편에서는 도교 문화 속 조용한 카리스마의 대표 주자인 신선 여동빈(呂洞賓)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동빈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여동빈의 본명은 여암(呂巖), 호는 순양자(純陽子)로 당(唐)나라 때 활동한 유학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검선(劍仙)과 여조(呂祖), 순양진인(純陽眞人)으로도 불리는 여동빈은 도교 팔선(八仙)의 리더 종리권(種離權)의 직계 제자인데, 그의 가르침을 받은 덕분에 신선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이에 여동빈 역시 종리권을 계승해 전진교(全眞教)의 교조를 맡았고, 평소에도 스승인 종리권을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여동빈이 압도적인 성격을 지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인의 기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유학자 출신이면서 신선, 무인의 모습까지 하고 있다니, 여동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팔방미인, 요즘 단어로 '육각형 인간'으로도 부를 수 있다. 여동빈의 무예 가운데 단연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검선이라는 별명답게 검을 다루는 솜씨다. 화룡진인(火龍眞人)이라는 신선에게 무예를 배운 여동빈은 천둔검법(天遁劍法)이라고 하는 막강한 검술을 구사하는데 이 검술로 약자를 보호하고 악귀를 처단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송(宋)나라 때 편찬된 〈능개재만록(能改齋漫錄)〉에는 여동빈의 자기소개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일찍이 흰 난삼에 각대를 둘렀다. 오른쪽 눈 아래에는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마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젓가락 머리처럼 컸다."

이 말인즉슨 여동빈은 자신이 신선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간의 외모와 다를 바가 없으며, 외모 콤플렉스가 될 수 있는 사마귀도 당당하게 말하는 소탈함과 겸손의 자세까지 보여주고 있다.

여동빈은 팔선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원(元)나라 미술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 원 말기에 건립된 도교 사원인 영락궁(永樂宮) 벽화가 가장 이른 여동빈 도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로 표현되는 여동빈은 화양건(華陽巾)을 쓴 유자복 차림에 자신의 상징물인 보검을 든 단독상이나 스승 종리권, 팔선의 일원으로 등장하며 호남성(湖南省)에 위치한 동정호(洞庭湖) 물 위를 유유히 걷는 신선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정호를 걷는 여동빈은 우리나라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는 여동빈이 유학자 출신인 점과 더불어 단아하고 고고한 자태, 조선시대 문인들이 동경의 장소로 생각한 동정호에 여동빈이 머물렀다는 부분에 매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 문인 윤선도(尹善道)의 〈고산유고(孤山遺稿)〉에는 여동빈을 "동정호 날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으며, 유몽인(柳夢寅)의 대표작인 〈어우집(於于集)〉에도 그의 별칭 중 하나인 순양진인을 언급하면서 동정호가 위치한 지명인 악양(岳陽)에 여동빈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여동빈은 여러 문학과 미술로 표현된다. 그런데 다양한 여동빈 도상을 살펴보면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도교 팔선 가운데 이 생명체를 동반한 신선은 여동빈이 유일한데, 마치 나뭇가지처럼 생긴 물체가 머리에 달린 특이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동빈이 데리고 있는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는 유자선(柳子仙) 혹은 유수정(柳樹精)이라고 불리는 버드나무 정령이다. 이 정령은 버드나무 요괴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여동빈은 요괴 출신인 유자선을 어떤 이유로 데리고 있는 것일까?


왕중겸필 〈선진동자책(仙真童子冊)〉 중 종리권과 여동빈(중국 청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유학자 출신의 검술 뛰어난 팔방미인
검술로 약한 이들 돕고 악귀 처단해
관음 상징 버드나무 정령 유자선이 보필
통도사·용주사·흥국사 등서 볼 수 있어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여동빈과 버드나무의 상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여동빈의 호는 순양자, 별칭은 순양진인이었다. 여기서 양(陽) 자는 버드나무를 지칭하는 양(楊) 자와 발음이 같기에 문학과 미술 속 여동빈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버드나무가 함께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불교의 영향이다. 잘 알려져 있듯 불교의 버드나무는 관세음보살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이는 버드나무 가지에 정수(淨水)를 뿌려 역병을 퇴치했다는 인도 불교에서 유래됐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전해져 도교에 영향을 준다. 역병을 없애는 버드나무는 요괴로 변했고, 이를 정화하는 정수는 여동빈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明)나라 때 편찬된 도교 사전인 〈도연휘록(道緣彙錄)〉에는 여동빈과 유자선의 스토리가 기록돼 있다.

"여동빈의 집에 류(柳)라는 양자가 있었다. 여동빈이 도(道)를 배우고자 집을 떠났다. 이후, 도를 얻어 돌아와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났는데, 버드나무 귀신이 되어 있었다. 이에 여동빈의 영험함으로 그 본성을 찾게 했고, 세칭 유선(柳仙)이라고 칭한다."

여기서 새롭게 각색된 부분은 유자선이 본래 여동빈의 양자인 류라는 인물이었다는 부분으로, 이 이름 역시 버드나무를 지칭하는 류(柳) 자를 사용하고 있다. 신선이 되기 위해 길을 떠났던 여동빈은 오랜만에 집에 방문했는데 자신의 소중한 양아들인 류가 버드나무 요괴가 돼 버린 것이다. 이에 여동빈은 검술 대신 자신의 영험한 기운과 분위기로 류를 정화했고 이후 류는 유자선이라는 새로운 모습과 이름을 지닌 채 여동빈을 보필했다고 한다.

유자선 스토리는 위에서 살펴본 〈도연휘록〉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영락궁 벽화에 유자선이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미술로 표현되는 유자선은 여동빈의 검을 대신 들고 있거나 피리 연주를 하는 모습, 종리권과 여동빈의 차를 끓이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여동빈과 유자선의 동반은 조선에 전해진다. 두 부자지간이 미술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인데 이 시기는 불교와 도교 신선 이미지를 삽도(揷圖)로 실은 〈선불기종(仙佛奇踪)〉과 〈삼재도회(三才圖會)〉 등 백과사전류가 조선에 유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김홍도(金弘道)와 김윤겸(金允謙), 윤덕희(尹德熙) 등 조선 미술계를 풍미했던 걸출한 화원들의 신선도에는 유자선을 동반한 여동빈의 모습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동빈은 불교미술로도 표현된다. 양산 통도사와 화성 용주사, 남양주 흥국사 등 수많은 사찰벽화에는 유자선을 동반한 여동빈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 살펴본 유해섬의 사례처럼 도교와 불교문화의 교섭, 사찰을 방문한 민초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자 한 불교계의 따뜻한 배려인 것이다.

마치며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남에게 뽐내고 싶은 욕구를 늘 지니고 있다. 이것이 적당하면 뛰어난 자기 홍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럴 때 여동빈의 행보를 주목하자. 뛰어난 도술과 무술 실력으로 악귀를 섬멸하고 약한 이를 도와줬던 여동빈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인간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언급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우리가 신선 여동빈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동빈의 삶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텅 빈 수레가 아닌 참된 인성과 능력을 지닌 내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용덕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솔직히 마음 드러낼 용기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㉚ ‘경도를 기다리며’(2025)



‘경도를 기다리며’는 의지와 무관한 이별 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긴 채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경도와 지우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사진 출처=JTBC 공식 홈페이지

한마을에 살던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음~~ 모르는 척~했더래요”라는 가사처럼 마음을 숨겼기 때문이다. 그 모르는 척이 얼마나 굳건한지 갑순이는 시집간 날 첫날밤에 한없이 울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고, 화가 나서 장가를 간 갑돌이도 장가간 날 첫날밤에 달 보고 울면서도 겉으로는 고까짓 것 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까지 든다. 이 둘은 과연 ‘서로’ 사랑했을까?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는 자림 어패럴의 사위와 여배우와의 불륜 의혹 기사를 작성하는 일간지 연예부 차장 이경도(배우 박서준)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도는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직접 업로드 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밥집에 앉아 먹지도 않을 소주병을 앞에 두고 있다. 경도의 마음을 후비고 있는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 여배우도, 여배우의 내연남도 아닌 내연남의 와이프인 자림 어패럴의 차녀 서지우(배우 원지안)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얼굴을 마주한 경도와 지우. 10년 만에 만났다는 둘은 깊은 사연이 있는 듯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는다. “고도는 기다려도 안 오지만 경도는 온다며?”라는 원망 서린 말을 던진 지우는 오래 끌던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기사 덕분에 쉽게 끝나게 될 것 같다며 자신의 이혼 소식은 꼭 경도가 쓰라고 한다. 조롱하는 듯한 지우의 말에 대한 경도의 최후의 일격. “장례식 때나 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서른여덟 살 경도와 지우는 지금은 원수 같지만, 스무 살 시절 연극 동아리를 함께하면서 사귀던 사이다. 친구의 학교를 찾아왔다가 경도를 알게 된 지우는 어찌어찌 남의 학교 연극 동아리 선배 셋과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다섯 명은 소주병을 끼고 살며 신나게 청춘을 누렸다. 평범한 대학생인 줄 알았던 지우가 알고 봤더니 재벌 집 딸이라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돈 걱정 없이 워크숍을 가게 해줄 물주가 생긴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우가 경도에게 사준 티셔츠 하나가 경도 어머니가 한 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가격이라는 자각이 생기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고, 결국 유학생이던 지우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둘의 첫 번째 사랑은 끝이 난다.

8년 후 연극 동아리 선배 세영(배우 이주영)과 우식(배우 강기둥)의 결혼식을 보러 한국에 들어온 지우. 결혼식장에서 지우를 다시 만난 경도는 말없이 떠나버린 지우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지만, 애틋했던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난 둘은 20대 후반다운 어른의 사랑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경도의 아버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생긴다. 지우까지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도. 이때 둘의 연애를 묵묵히 지켜만 보던 지우의 언니 지연(배우 이엘)이 지우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한다. 지우가 서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 어머니가 외도해서 낳은 딸이라는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서 회장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다정한 아버지로서 지우를 대했지만, 지우의 어머니는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지우에게만은 유난히 차가웠다.

지연이 지우에게 이러한 ‘출생의 비밀’을 밝힌 건, 둘 사이가 계속되면 평생 지우가 어머니에게 받아오던 모멸의 눈빛을 경도가 받게 되리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러니 다 잊고 미국으로 가서 자림 어패럴의 빛나는 서지우가 되라는 것. 한마디로 사랑놀이는 이 정도로 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재벌가로서의 삶을 살라는 뜻이다. 지우는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을 하며 경도와의 추억이 담긴 500원짜리 동전을 경도의 집에 남겨두고, 두 번째 이별을 한다.

또다시 지우가 말없이 사라지자 경도의 삶은 무너진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술에 의지하던 경도는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힘겹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경도는 술을 좋아하던 지우를 잊듯 그 후로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살았다.

18년 동안 세 번의 사랑 · 이별 이야기
사랑 가른 건 배경 등 주변 상황 문제
상대 이해 구하지 않은 탓이 가장 커
사람 간 오랜 위로 · 응원 담은 드라마
시청자에 경도처럼 지켜줄 존재 물어



‘경도를 기다리며’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JTBC 공식 홈페이지

다시 10년이 흐른 어느 날, 이번에는 남편의 불륜 기사를 쓴 기자와 그 남편과 이혼을 앞둔 아내의 입장으로 만난 경도와 지우.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공격과 조롱 같은 대화도 잠시, 영국으로 떠나려는 지우를 공항으로 달려간 경도가 붙잡으며 두 사람의 세 번째 사랑이 시작된다.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경도와 30대의 사랑을 하면서, 서 회장의 유지에 따라 자림 어패럴의 상무가 되어 경영인의 면모를 드러내는 지우.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우의 이혼을 둘러싸고, 경도와 오랜 내연 관계였던 지우가 남편과의 이혼을 설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둘의 사랑은 또다시 위기를 맞는다. 사랑뿐만 아니라 자림 어패럴의 상무 자리까지 걸린 문제인 셈. 경도는 혼자서 그 모든 파도를 막으려고 한다. 바로 둘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열애설 사실무근 기사.

두 번째 이별을 할 때 미국으로 떠나던 지우는 서 회장에게 경도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 회장은 김 기사(배우 최덕문)를 통해 늘 경도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경도의 아버지가 크게 다쳤을 때, 세탁소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서 회장이 남몰래 지원을 해준 덕분. 서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매년 서 회장의 기일에 자림 어패럴의 정장을 구입하며 경도 나름의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는 경도 스스로 세 번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지우에게 ‘불륜녀’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지우를 향한 경도의 더 큰 사랑이었다. 그렇게 둘은 세 번째 이별을 한다.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는 스무 살부터 서른여덟까지 18년 동안 세 번의 사랑과 세 번의 이별을 하는 경도와 지우의 이야기다. 사실 이들의 이별은 본인들의 문제보다는 주변의 탓이 더 커 보인다. 서로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재벌가와 보통 사람의 만남에서 오는 갈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두 사람 이별의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사정을 상대에게 말하여 이해를 구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별할 때마다 지우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경도 곁에서 사라진다. 그러면서도 경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경도와 선배들이 공연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매년 몰래 보러 온다.

경도는 더하다. 첫 번째 이별의 계기가 되었던 지우가 사준 티셔츠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연극 공연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서지우는 안 온다”는 대사를 해서 연극을 망친 적도 있다. 서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저 먼발치에서 지우를 보고만 온다.

자신들의 의지로 헤어진 것이 아니어서 마음은 늘 상대에게 가 있지만, 애써 마음을 숨기며 드러내지 않는 두 사람.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는 갑돌이와 갑순이랑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도 내내 ‘서로를 기다리며’ 힘든 날들을 보내온 경도와 지우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찾아 스페인까지 날아간 두 사람. 디자이너 벨라 진(배우 임상아)은 스무 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하며 경도에게 묻는다. “중간에 다른 여자 좋아했던 적은요?” 경도의 대답은 “스물여덟의 서지우요”였다.

‘경도를 기다리며’를 집필한 유영아 작가는 자신의 드라마에 “사람과 사람의 오랜 응원과 위로를 담았다”고 밝히면서 시청자들에게 “당신에게도 경도처럼, 내가 주저앉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누군가, 나를 지켜내고 싶어 하는 무엇인 존재가 있는지” 묻는다.

당장 떠오르는 얼굴은 부모님이다. 나이 든 자식 걱정에 여전히 노심초사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버린 배우자, 가족들. 무엇보다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굽어살피시는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빼놓을 수 없으리라.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이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면서도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경도와 지우처럼 ‘모르는 척’하거나 ‘안 그런 척’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은지. 때로 마음을 드러내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용기라면 주저 없이 내야 하지 않을까.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한마음 자리에 모든 것 놓고 말길 때 보리가 싹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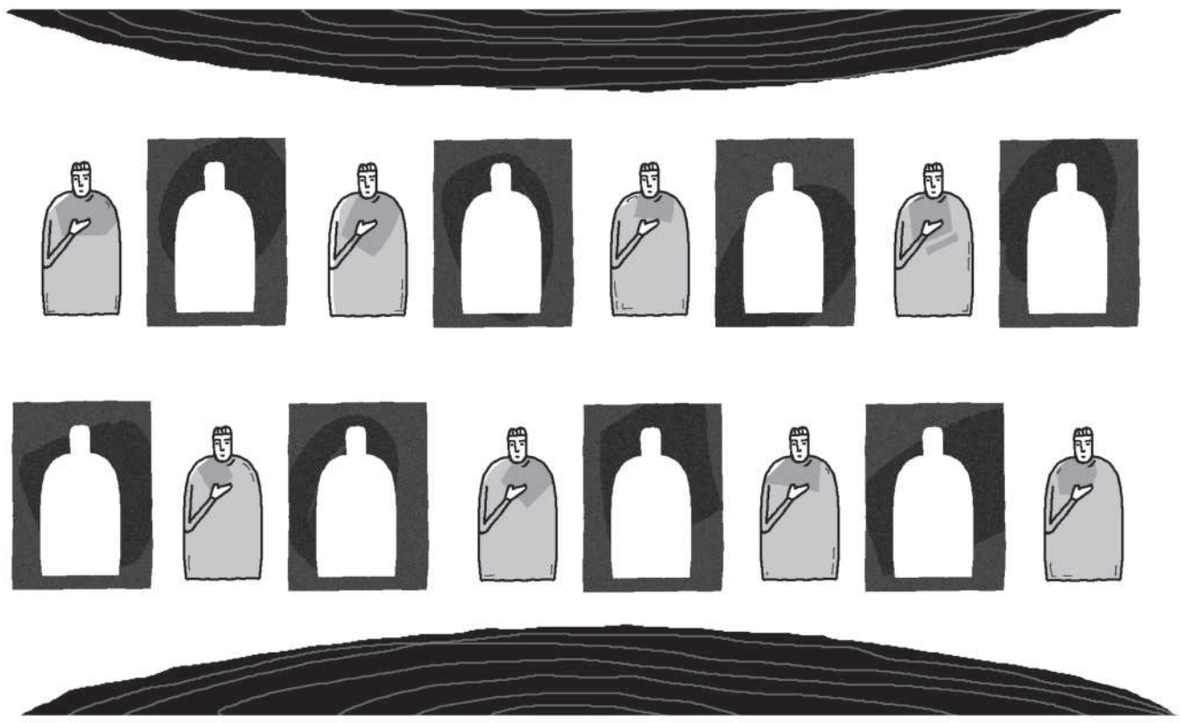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죠? 사계절 없는 봄. 마음속의 봄맞이. 여여하게 봄을 활보할 수 있는 봄맞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50%의 맛을 모른다면 물질계의 50%에서 허덕거리다가 꺼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뭔지 허망한 것이 뭔지 그것조차도 가늠 못 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 계실 때에 모든 상대가 있고 인연의 법칙이 있고, 이런 반면에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어지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망상과 졸음 그 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관(觀)할 때는 반드시 졸지를 말아야 하고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망상과 졸음을 얘기한다면, 그 졸립고 망상이 난다는 걸림에 걸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잔다 깬다, 잔다 자지 않는다'가 붙어서는 선(禪)에 즉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거기 직결되지 못합니다.

물론 초발심 때는 자경문도 읽고 계율도 엄하게 지켜야 하고 또 망상도 물리치고 졸음도 물리쳐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나가는 관습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를 쫓아가도 아니 되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발자취가 얼마만큼이나 컸나, 한 짝이 크고 한 짝이 작으니까 한 짝을 얼마나 키웠나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졸음을 금하면서 칼을 목에다 대고 하느니보다 모든 것이,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몽땅,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로부터 벌어졌으니까 나로부터 알아야 하지 않나. '졸린다, 졸리지 않다, 졸음을 쫓아야겠다' 하는 것도 거기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직결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 '나'라는 혹성의 본래자성불은 그대로 둘이 아니게 얽혀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응이 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말을 또 해야 되겠군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집만 받은 겁니다. 자기 나오기 이전 영혼과 나오기 이전에 살 때에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인연들이 전부 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몸속으로 한데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잘되고 잘못되고 그걸 모릅니다. 악업 짓고 선업 지은 그 인연에 따라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그것만이 아주 입력이 돼서 현실로 착착 나옵니다, 현실로. 그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도 죽이게 하고, 강도질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또는 선한 일도 하게 하고, 욕도 하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병도 오게 하고, 애고도 오게 하고,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를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는가. 이 주인공에 놓는 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탄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에 왜 간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깐 일어나는 대로, 모든 거를 그 불바퀴에 놔라 이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낫게 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이끌어 줄 수 있다. 나 아닌 나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진실하게 내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이것이 벌써 졸린다 하면 졸리지 않은 게 따라붙고, 망상이다 하면 망상이 아닌 것이 따라붙죠.

이러니깐 수박을 놓고선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 봐도 도무지 그 수박의 맛이 나오지 않고, 첫째로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가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씨를 찾으려고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만 생기는 겁니다. 이 모두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한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오다 점수다 할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나와 내가 상봉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에 초발심에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내 집에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남의 집으로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통하는 것이지 그럭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전화 올 때를 바라고 전화할 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천년만년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법이요, 또는 없어서 고생을 하면 일을 하는 법이요. 안 그렇습니까? 졸리면 자는 법이요, 배고프면 먹는 법이요, 똥이 마려우면 소통이 돼야 하니까 똥을 누는 법이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이 모두가.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직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께서는 진실하게 일념으로 구했습니다. 진실한 일념. 진실한 일념으로 구해야 구해지고, 진실한 일념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자체에 있다는 그 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근본 자체를, 외국에서 말하는 거는 블랙홀이라고 합디다마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로 말할 것 같으면 불바퀴요, 또는 전체가 둘이 아니면서도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개인 혹성 하나가 바로 또 불바퀴라는 얘깁니다. 불바퀴 자체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요' 한 것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니까 하는 소립니다.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고 같이 작용을 하지 물질계는 물질계대로 놀고 정신계는 정신계대로 놉니까? 안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사시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몸이 움죽거리죠? 이것이 바로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 혹성 하나가 개개인으로 있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개개인으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불바퀴가 쉬지 않고 여여하게 화해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조그마한 마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이 우주 전체에 직결이 돼 있다는 그 사실, 또 이 세상살이 살림살이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예요.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들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나 보이는 부처나, 모두가 포괄적으로 통하고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하고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생이며 공용이고, 공용이면 바로 공식화하고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입니다.

불교는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끝 간 데 없는 진리를 이름해서 바로 불교라고 한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름이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둘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도 어떠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떠한 생각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깨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삶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고 모든 일들을 문란치 않게 하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된 자리요, 밤과 낮도 초월된 자리요, 여자와 남자도 초월된 자리요, 동서도 초월된 자리입니다. 늙고 젊고도 초월된 자리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했지요.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가 없더라. 남녀노소도 없고, 마음도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늙었더라."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죠.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면은 여러분 가슴에 채워지지 않을까 봐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질문자1(남) 스님께서 항상 마음공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꾸 괴롭거든요, 마음이. 중심 잡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이렇게 괴롭지 않고 공부 잘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큰스님 이거 봐. 대신 똥 눠 주는 사람이 없을 테고, 대신 밥 먹어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죽어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아파 주는 사람 없을 테고, 대신 자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것은 자기한테서 답답한 것도 나오고 자기한테서 고통스러운 것도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되입력을 해. 카세트에 먼저 괴로운 입력이 되어 있다면, 괴롭지 않은 입력을 하란 말이야. '네가 있다면 괴롭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알아듣겠어? 그러면 앞서 입력한 게 없어져 버릴 거야. 모든 것이 다 그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스님께서 참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체와 육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체가 진정한 참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아, 유체는 뭐고 무체는 뭐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무체와 유체가, 무심과 유심이 다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질문자2(남) 제가 더불어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거는 제 육신이 있고, 제 육신 안에 그 전생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또 하나의 혼이 있어 가지고 혼이 제 육체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진정한 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혼이라는 것은 업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참나의 본래자성불이란 더하고 덜함도 없고 움죽거리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능력이 광대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중생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위로는 참자기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라. 그것부터 제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둘로 보지 마십시오. 혼백이다, 무슨 생명이다, 무슨 나다, 이런 걸 다 초월하십시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거기서 동시에 나오는 거니깐요.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분별, 망상에 대해서 큰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 동안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큰스님 말씀대로 많은 망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순간 제가 느껴본 것은 '망상이 있기에 보리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 즉 한마음 자리에다 모든 것을 놓고 맡길 때, 보리가 싹트는 것이며 또한 분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망상도 바로 보리로 가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생각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법이요, 없어서 고생을 하면 일을 하는 법이요
졸리면 자는 법이요, 배고프면 먹는 법이요
똥 마려우면 똥을 누는 법이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큰스님 그렇게 해 나가세요. 이 망상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일 것이고, 망상이 아니라고, 즉 말하자면 '망상이 없으면 아, 우리가 목석이지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발전으로서의 계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생각나는 대로, 즉 말하자면 좌선이다, 입선이다, 와선이다, 행선이다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일할 때나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모든 걸 막론해 놓고 '그놈이 있으니까 하지. 들이고 내고 하는 놈이 그놈이다.' '그놈은 또 무엇인가?' 하지 말고 '그놈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놈이 무엇인고?' 하는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맛도 못 보고 작년 씨가 올로 이렇게 온 거를 모르고, 작년 씨 찾다가 해 다 보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3(남)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늘 생각해 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시간이란 개념을 떠나서 큰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를 온 가족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공부하는 내용과, 제가 뭘 얻었다는 개념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에 부닥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도반으로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경계가 크게 온다', 어떤 사람은 '경계가 작게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경계가 크게 왔을 때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혹 경계가 작았을 때는 어떻게 그냥….

물론 조그만 것 큰 것 할 것 없이 전부 넣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가 돼 가는 것인지. 한편으로 잔잔한 바다같이 순항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도 또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큰 경계가 와야 크게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그러한 정도가 꼭 경계의 크고 작음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큰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가고 있다고 느끼고 큰 경계가 없음을 또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공부가 일취월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답보 상태인지 그게 구별이 잘 안 가서 여쭈어 봅니다.

큰스님 세상에 공안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듯이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마세요. 이 모두가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해도 아니 되고, 내가 안 하겠다 해도 아니 됩니다. 그저 내 앞에 닥친 거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한데 뭉쳐 놓는 그런 작업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3(남) 저의 가슴에 항상 봄이 와서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4(남) 테이프로 법문을 듣다가 의심이 나서 스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일체 중생이, 또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 각각 달라도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윤회 법칙에서 본다면 육도 사생이 윤회를 할 때에, 만물 중에는 유정물과 무정물과 동물, 식물 일체가 다 포함되는데, 육도 사생으로 본다면 유정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 있는 세계로서의 윤회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산에서 고행하시는 중에 어느 나무 한 그루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 자체의 그 이전 세계를 보니까 물속에 있는 어류 중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일체 중생이 하나라고 하지만 윤회 법칙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물과 식물이 구별이 되고 또 동물이 식물 된다는 그런 윤회의 말은 못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물과 식물이 구분이 되며, 동물은 여전히 동물로만 진화하는 윤회 법칙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어류가 나무가 되듯이 식물도 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옛날에 어느 사람이 죽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식만 가지고서 가다 보니깐 어느 나무에 도달했더랍니다. 그래서 목신이 되었답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한데 합쳐서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사생·육도·만행 하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 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려면요, 책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너만이 일러 줄 것이다. 너만이 알 것이다.'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놓고 가세요. 이것은 글자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또는 지식 공부하고 경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질문자4(남) 예.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4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⑥ 망상 · 두려움 뒤 숨은 죄책감을 마주하는 여정

"내 딸은 유명한 배우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남긴 상처와 이야기들

상담실로 찾아온 김상담 어르신(가명·85세)은 단정한 옷차림과 달리, 대화를 하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험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손주가 괴한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사람 뼈를 톱으로 썰었다"는 등 과격한 표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누군가 쇠톱으로 자신의 집 철창문을 자르고 들어와 해치려 한다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르신을 피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 험한 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만의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어르신이 왜 과격한 언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한문을 가르칠 때 "잘 배우지 못하면 잡아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해결되지 못한 이 과거의 위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노년의 외로움과 맞물려, 방어적인 가시로 돋아난 것이었습니다.

망상 뒤에 숨은 죄책감

어르신이 반복해서 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는 자신의 딸이 아주 유명한 배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 보니, 어르신은 부인과 이혼 후 홀로 지내시며 큰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어르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망상은 아픈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어르신의 마음이 만들어 낸 슬픈 방패였습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딸에게 편지를 쓰며 "미안하기만 하다", "먼발치서만 보겠다"고 하시던 모습은 그 죄책감과 그리움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유 연상으로 무의식 엿보고 그리며 표현

이런 망상 장애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에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상담의 첫걸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어르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수용·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자, 어르신의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술 치료를 통해 가득 찬 불안을 밖으로 안전하게 꺼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동시에 어르신의 무의식 세계를 엿보고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사진 이미지를 활용한 '자유 연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망상 이면의 외로움 · 트라우마 수용
온전한 믿음, 어르신 마음의 문 열어
과거 상처 마주하며 안정감 되찾아

여러 사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도화지에 붙이도록 안내하자, 어르신은 화가 난 여자의 얼굴을 두 번이나 붙이셨습니다. 사진을 반듯하게 붙이면서도 풀이 손에 묻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는데, 이는 어르신 내면의 높은 불안과 강박적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어르신의 마음을 유연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손에 묻지 않는 부드러운 점토를 활용하며 단계적으로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활동을 시간 낭비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멋지게 전시해 드리자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보실 만큼 큰 성취감을 느끼셨습니다. 어린 시절 동물을 키우며 평화로웠던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하시며, 굳어 있던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엮어가는 안전망

어르신의 문제는 상담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인한 과거의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치매의 초기 증상인지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민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해, 어르신이 적절한 약물 치료와 돌봄을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병행돼야 합니다. 상담과 의료적 지원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어르신은 더 이상 환상 속에 갇히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상 깨고 진짜 내 마음을 안아주기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대표 경전인 〈금강경(金剛經)〉에는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무서운 괴한들이나 딸에 대한 화려한 이야기들은 모두 상처받은 마음이 빚어낸 허상(虛相)이었습니다.

그 허상에 갇혀 억압된 감정에 짓눌린 어르신은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마음을 다독여주자 비로소 과격한 말들을 멈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어르신처럼 밤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했던 바깥에서 문을 자르고 들어오는 쇠톱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일지 모릅니다. 진짜 내 마음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 비로소 허상은 사라지고 평온한 오늘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59 비문증

"눈앞에 날파리가"…눈의 경고 면밀히 살펴야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것이 떠다니는데,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 하나요?"

안과 외래를 찾은 비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많은 의료진이 비문증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비문증은 단순히 '참아야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무너뜨리는 절박한 고통일 수 있다.

실제로 진료실에는 비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심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찾아온다.

시력 검사표의 글자를 잘 읽는다고 해서 환자가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교정시력이 1.0이라 할지라도, 시야를 가로지르는 혼탁(Vitreous opacity)의 정도에 따라 환자가 체감하는 시각적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민한 성격의 사람일수록 증상을 더 크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문증의 호소를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자세한 안과 검진을 통해 후유리체 박리(PVD) 여부나 실제 유리체 혼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뒤에 숨겨진 기저 원인(Underlying Cause)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비문증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유리체의 노화와 근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 층의 근시 비율이 높은데, 근시안은 정시안보다 안구의 앞뒤 길이가 길어 유리체 변성이 훨씬 빨리 진행된다. 때문에 젊은 층의 비문증 증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신호다.

갑작스러운 비문증은 실명 위험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는데, 포도막염과 같은 안구 내 염증, 당뇨망막병증(DMR)으로 인한 미세한 유리체 출혈, 혹은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열공이나 벽지처럼 떨어지는 망막박리가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기저 질환이 있는 비문증의 경우라면 '적응'이 아닌,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망막박리는 초기에는 비문증이나 광시증으로 나타나지만, 방치하면 시야가 커튼을 친 듯 가려지고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근시 환자라면 비문증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근시안은 안구가 앞뒤로 길어지면서 유리체 내부의 입자 크기 분포가 불규칙해지는데, 이로 인해 입자들이 크게 뭉치면서 일반적인 노화 현상보다 더 크고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유리체 노화, 근시, 안구 내 염증 원인
갑작스런 증상, 망막박리 신호일 수도
젊어도 근시 심한 경우 정밀 검사 필요

정시나 원시 환자에게 나타나는 급성 후유리체 박리(Acute PVD)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유리체 변성이 심한 고도근시 환자들은 기다린다고 해서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근시가 심하다면 "눈에 먼지가 좀 보인다"는 정도로 증상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통해 유리체 혼탁의 정도와 망막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그렇다면 숨겨진 기저 원인이 없는 비문증은 정말 치료 방법이 없을까? 현재 먹는 약에 대한 연구 개발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흔히 알려진 야그(YAG) 레이저는 아직 권유할 만한 보편적인 치료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혼탁이 심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백내장 진행, 안압 상승, 안내염 등의 위험이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있고, 큰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선의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는 의료진의 자세다.

비문증은 우리 눈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증상을 과소평가하기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내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1년에 한두 번의 정기적인 안저검사는 비문증 뒤에 숨은 위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 모두가 눈 건강을 잘 챙겨 세상을 맑게 바라보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이 좋겠다.



송미연
동국대일산병원 안과 조교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우리 복지관은 지금 7.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로봇과 다시 걷는 일상, 재활 훈련 새 장



화성시아르딤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과 복지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웨어러블로봇(H10) 도입을 기념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재활은 병원이나 치료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가 기능 회복과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로봇재활사업'을 통해 재활의 공간을 확장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재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은 2019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로봇재활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보행, 상지, 웨어러블, 스마트 재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재활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로봇재활은 '워크봇(Walkbot)', 상지재활로봇(U30A), 웨어러블로봇(H10)' 등 다양한 재활로봇을 활용해 이용자의 기능 수준에 맞춘 맞춤형 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복적이고 정밀한 훈련을 통해 보행 능력 향상, 관절 가동성 및 근력 증진,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개선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로봇은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보행 훈련을 가능하게 해 재활의 효과를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이용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스마트재활실'은 다양한 재활 기기와 운동 장비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 치료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기 주도적 운동 습관 형성을 통해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리블레스 홈 재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재활의 연속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일관절 운동 장비 '리블레스(Rebless)'를 가정에 대여하고, 치료사가 원격으로 사용법 안내와 운동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복지관 방문 없이도 집에서 꾸준히 재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재활 공백기를 최소화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의 로봇재활사업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이용자의 삶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 재활 서비스로 발전해 왔다.

특히 비영리기관으로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양질의 재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은 로봇기술과 복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재활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성창 사회복지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③ '남산-숨, 쉼' 새로운 시작

새출발을 위한 숨 고르기

3월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계절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새로움은 설렘과 함께 긴장과 부담을 동반한다.

새 학기와 새 업무, 달라진 관계와 역할 앞에서 사람들은 어느새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먼저 꺼내 들고, 그 마음은 몸과 호흡을 조급하게 만든다. 시작부터 숨이 가빠지면 새출발은 곧 피로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앞서 필요한 것은 속도를 높이는 결심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이다.

서울 남산 충정사가 3월에 마련한 선명상 프로그램 '남산-숨, 쉼'은 바로 그 회복의 시간을 제안했다.

2월의 '정월마중'이 한 해의 마음을 정돈하는 자리였다면, 3월의 '남산-숨, 쉼'은 그렇게 정돈된 마음을 다시 일상에 심는 과정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작'이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리듬을 되찾아 삶을 다르게 살아갈 여지를 마련하는 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3월 프로그램이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시작'을 하나의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리, 호흡, 움직임, 그림책, 대화라는 다양한 매개를 통해 참가자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시작의 문을 스스로 찾아갔다.

조급함 내려놓고 리듬 되찾는 시간
소리·호흡으로 나만의 '시작' 찾아야
작은 결심이 일상 이어질 때 변화로

누군가에게 '시작'은 다시 깨어 있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친 마음을 돌보는 일이었으며, 어떤 이에게는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삶의 자리와 마음의 결은 각자 달랐다. 충정사의 선명상은 이러한 차이를 억지로 하나로 묶지 않고, 각자의 속도와 언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소리와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 명상들이었다.

싱잉볼 명상은 울림을 따라 현재의 감각에 머무는 시간을 열어 주었고, 치유 비니요가와 리본(RE:BONE) 명상은 굳어 있던 몸의 중심과 허리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내며 쌓인 피로와 감정을 내려놓도록 도왔다.

참가자들은 "명상하기 전에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 기분 전환이 돼 가벼워졌다. 나를 돌아볼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고, 또 다른 참여자는 "집에서도 호흡명상을 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치유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일상으로 이어지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남산에서 고른 숨이 집과 직장, 관계 속으로 이어질 때 '새로운 시작'은 비로소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자리 잡는다.

3월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 충정사는 또 다른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인테리어 공사로 4월과 5월은 프로그램을 잠시 쉬게 됐지만, 다음 만남을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

한층 더 새로워진 충정사, 그리고 여덟 명의 명상 안내자들과 다시 만날 시간은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남산에서 함께 고른 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숨은 각자의 일상에서 조용히 이어지며 다시 만날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

봄의 한복판에서 '시작'을 연습했던 기억이 다음 계절에는 더 깊은 쉼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쉼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⑫ 진달래꽃 피면

이제 곧 진달래꽃이 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연분홍 치마가 꽃바람에…'를 흥얼거릴 것이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성황당 길이 아니라 봄꽃 놀이를 가도 한복을 차려입었다. 한복을 입지 않으면 나들이로 치지 않았다. 그 시절 어머니들에게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에 대한 선물이었고, 일상 탈출 선언이었다.

내 어머니에게 한복은 평상복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구식 여성도 아니었다. 어느 날 한복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머리 모양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하니까, "어제 네 아버지랑 극장에서 '닥터 지바고' 보고 미장원에 가서 여주인공 머리처럼 해 달라고 해 봤다"고 하시던, 좀 엉뚱한 구석도 있는 분이었다.

어머니의 한복 입은 모습이 떠오르면 생각나는 절이 도갑사다. 도갑사는 내 어머니의 절이었다. 매달 초하루나 보름이면 도갑사에 가서 하룻밤 묵었다 오곤 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도갑사는 어머니의 해방구였다.

어머니는 절에 가기 전날이면 쌀이나 양초, 향 같은 것을 보따리에 싸서 빈 장독에 담아 두곤 했다. 가끔씩 방석을 만들어 공양물로 가져가기도 했는데, 방석 아랫면에는 아이들 이름을 수로 놓았다.

도갑사 대웅전 꽃살문에서, 방석에 자식들 이름을 수놓던 어머니의 마음을 본다.

손영자 작가



도갑사 대웅전.



흔들리는 시대, 불교는 어떻게 중심을 세우는가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세계는 다시 대혼돈이다. 전쟁과 갈등, 경제 위기는 어느새 개인의 마음까지 파고든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 앞에 선다.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지금 한국불교가 보여주는 변화는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다. 중심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 답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선명상대회, 봉은사 담선대법회라는 세 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박람회가 문화적 확장을 보여준다면, 선명상대회는 일상 속 수행의 실천을 제안하고, 담선대법회는 수행의 깊이를 더한다.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사람을 자기 안으로 돌려세우는 하나의 길을 가리킨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전통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넘어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젊은 세대와 무종교 관람객의 유입은 불교가 특정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삶의 방식과 감수성의 언어로 읽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올해 박람회 사전 등록 관람객은 5만794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1만1187명 수준에서 출발한 행사가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커졌고, 올해 처음 유료 입장으로 전환했음에도 신청이 몰리며 사전 등록이 조기 마감됐다.

이는 불교가 더 이상 종교 내부의 담론에 머물

문화 플랫폼 박람회, 문턱 낮춘 선명상
내면 중심 잡는 수행의 장 담선대법회
하나로 이어질 때 더 큰 시너지 나타나

지 않고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확장은 선명상으로 이어진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시한 선명상은 거창한 깨달음의 언어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한다. 전통 간화선의 맥을 잇되, 대중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수행을 어렵게 느끼던 사람들에게 불교는 다시 생활의 언어로 다가가고 있다.

봉은사에서 이어지는 담선대법회는 그 실천을 수행의 장으로 완성한다.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다. 한국불교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최근 불교가 사회적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박람회의 흥행이나 행사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바탕에는 종단 내부의 안정과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바깥의 신뢰는 결국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 사찰과 종단 부서, 각종 사업과 수행 프로그램이 따로 움직여서는 힘이 분산된다. 박람회, 선명상, 담선대법회가 하나의 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더 큰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되지 않으려면 성과를 이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연기를 말해 왔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지금 한국불교가 보여주는 문화적 실천은 바로 연기의 현대적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연결은 전략이기 이전에 불교의 본래 정신이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중심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금 한국불교가 만들어가는 연결의 힘은 그 중심을 세우는 하나의 길이다.

도시인의 삶에서 선을 묻다

〈禪〉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는 대체로 도시에 산다. 농촌이나 어촌, 산촌에 사는 경우에도 도시와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구의 산업화로 본격화된 근대를 우리는 19세기 말 갑오개혁을 통해 받아들이고자 했지만, 불행히도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식민화된 삶을 강요받으면서 20세기를 맞아야 했다. 쌀을 공출하기 위한 도시로 전북 군산이 부상하기도 했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철도를 배경으로 삼아 대전과 천안, 서울, 평양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시화 물결은 공업화 과정과 함께 몰려오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던 집의 딸들이 오빠를 위해 서울이나 부산, 울산의 공장으로 보내졌고, 급기야 온 가족이 짐을 싸들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그들은 도시 중심에 들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달동네'를 형성하면서 힘겹게 뿌리를 내려야 했다. 세계적 도시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에 의해 학문적 자격을 부여받은 이 '달동네'는 21세기 들어 재개발을 명목으로 거의 사라졌지만, 그 고단하면서도 정겨웠던 거주의 기억은 우리 근대화의 추억으로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도시는 특히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노출돼 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주목

수도권 집중 아파트 중심 도시인 삶
자유·편리에도 불안·우울감에 휩싸여
주체적·공존하는 삶 위해 선 떠올려야

받았고, 이 아파트 중심의 삶은 이웃에 대한 적당한 무관심을 토대로 삼는 도시인의 삶을 상징하게 됐다.

이런 도시인의 삶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유롭고 또 편리하다. 돈만 조금 있으면 손쉽게 필요한 것들을 배달시킬 수 있고, 정 외로우면 반려견이나 사교성을 갖춘 로봇을 맞아 들이면 된다. 그런데도 도시인들의 삶이 불안과 우울감으로 휩싸이고 있다는 연구가 끊이지 않는다. 편리함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됐지만, 특별히 나쁘지 않은 삶임에도 왜 우울감과 불안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본성에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성과 만나게 된다. 하나는 본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어우러짐을 전제로 할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외로움과 우울감이라는 도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징후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져서 병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인의 철학이자 윤리로서 선(禪)을 떠올릴 수 있다. 선은 삶에 다가와 있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물음들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게 화두(話頭)를 붙드는 수행 과정을 일상에 포함하고, 그 과정들은 다시 주어진 일에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선사(禪師)의 높은 차원의 선을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도시인들에게도 서늘한 선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음을 깨달을 필요도 있다.

社 說

제주 4·3 불교계 피해 밝혀져야

제주 4·3 사건은 오랜 세월 '말할 수 없는 역사'로 남아 있었다.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음에도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혔고,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불교계가 입은 참혹한 피해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최근 들어 일부 자료와 증언, 그리고 기록 작업을 통해 그 실상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3월 28일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 봉행된 '제9회 제주불교 4·3 추모위령재'는 이러한 아픔을 보듬고, 상생과 화합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법석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숭고한 발걸음"이라며 불교계 희생자와 피해 사찰에 대한 온전한 진상 규명과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제주가 진정한 참회와 평화의 정토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4·3 사건, 사찰 소실·스님 희생
진실 규명이 상생·화합 첫걸음

실제로 4·3 당시 제주 지역 사찰 80여 곳 가운데 50곳 이상이 소실될 정도로 피해는 참혹했다. 관음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은 토벌대와 무장대의 충돌 속에서 초토화됐고, 스님들은 민중과 함께하다 희생됐다. 관음사 주지 오이화 스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입적했고, 이세진 스님을 비롯한 17명의 스님이 희생됐다. 이는 제주불교의 신행 기반을 크게 흔들었을 뿐 아니라, 민중과 함께 정토를 구현하고자 했던 원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해는 오랫동안 공적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종교 영역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불교계의 아픔은 '기억의 공백'으로 남았다. 최근 발간된 자료집과 증언 채록 작업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특히 공식적인 진상 보고서에 불교계 피해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추가 조사와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이 시급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4·3과 같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폭력 범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질 수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 회복은 정의 실현의 최소한이다. 기록이 사라지고 증언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시간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울러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희생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가가 입증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생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참회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자비는 진실 위에서만 꽃필 수 있다. 제주 4·3의 아픔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은 과거를 파헤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가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온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국가폭력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용기와 그 위에 서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4월 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4월 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이사장직인 개인공고

■ 재단명
재단법인 법성재단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화황산로 187

상기 재단의 이사장 직인은
2026년 2월 10일자로 개인하였기에
이후 사용된 전 이사장의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70(2026)년 2월 10일

재단법인 법성재단
이사장 법 련

대표(주지)직인 개인공고

■ 사찰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성보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8 (진관동)

상기 사찰의 주지(대표)직인은
2026년 3월 20일자로 개인하였기에
이후 사용된 전 주지의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70(2026)년 3월 20일

성보사 대표(주지) 법 련

拂子

下心으로 예를 올리는 자리
수행의 기품을 완성합니다

청정수행의 표상이신
태덕 큰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불자(拂子)는?
큰스님들께서 설법 또는 수행시 사용하는 법구(法具)로
마음속의 번뇌와 잡념을 털어내는 대표적인 법구입니다.



- 주문제작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종단 문양과 법명이 각인됩니다
- 불구(佛具)별 고급케이스로 포장됩니다
-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하몰! 010-8825-4367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